신한 톡톡

신한대학교 소식지

198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19
12



ISSUE 1 – 강성종 총장 취임
ISSUE 2 – 신한대학교 타슈켄트 4년제 종합대학 설립
ISSUE 3 – '평화의 소녀상' 건립
ISSUE 4 – 2019년 축제 '신기해 축제'

· 총장배 세계평화 태권도 페스티벌
· 치위생학과 이경희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신한대 도서관 어플 제작자 인터뷰
· 도서관 학술정보 박람회

신한대학교 새로운 교수 대거 임용
〈기자들의 대담〉: 지금의 '교양'이란?
니치버스터 강연
Culture 서평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톡톡'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강성종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 **Tel.** 031 870 3205
• **발행일** 2019. 12. 30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최수민 기자
• **디자인·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31 870 3407 • **정가 8,000원**

Contents

01_US.KOREA.SOL.1010.599.GX
02_이념과 비전
04_ 편집장 논설
06_ 강성종 총장 취임
08_총장배 세계평화 태권도 페스티벌
14_신한대, 타슈켄트에 4년제 종합대학 설립
16_'평화의 소녀상' 건립
20_로고스 몽골 해외봉사
22_신한대학교 스터디 소개와 학생 인터뷰
28_신한대학교 새로운 교수 대거 임용
30_학과 특성화 수업 증설
34_2019년 축제 '신기해 축제'
40_체전
42_산업디자인전공 미래패키징 신기술 공모전 수상
44_치위생학과 이경희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46_태권도교육융합학과 2019 부안마실 총 퍼레이드
48_니치버스터 강연
50_도서관 학술정보 박람회
52_신한대 도서관 어플 제작자 인터뷰
56_'신한폴' - 참여자·호원경찰서 인터뷰
58_K-pop 학과 Accent 공연
60_〈기자들의 대담〉: 지금의 '교양'이란?
62_컬쳐
72_이모저모
78_기부금 현황
80_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2020 수시모집 5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



대학이념

창학이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사명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으로
새로운 시대 발전에 공헌한다.

교육목적
기독교 사랑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선도적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 섬김을 위한 영성교육
- 인류를 위한 시민교육
- 국가를 위한 실용교육
- 자아를 위한 전문교육

교훈
- 사랑과 봉사
- 소통과 공감
- 지성과 창의
- 도전과 발전

인재상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Shinhan 國人)'양성
- 사명인
- 세계인
- 실용인
- 학습인



대학비전

Vision Statement
교육품질로 도약하는 취업명문
New-versity, 신한대학교

Vision Slogan
START for New-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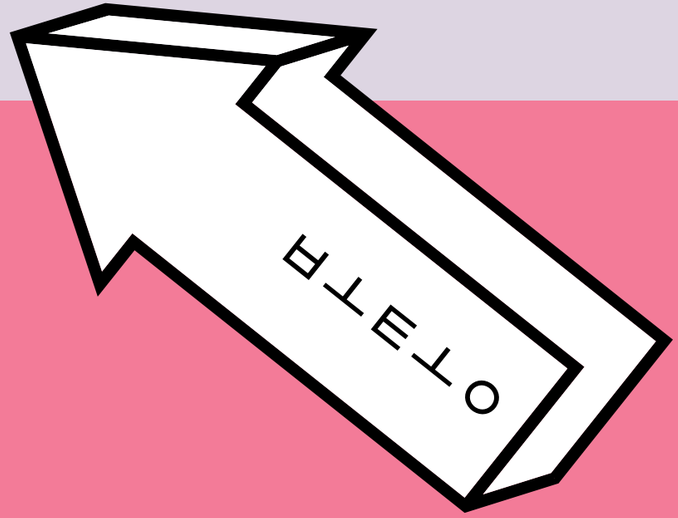
Strategy Goal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인재
더 나은 교육

Strategy
START Q 전략

S T A R T Q

- S 신한국인(Shin-Han國人)을 양성하는 New-versity
- T 내일(Tomorrow)의 비전을 함께 실천하는 New-versity
- A 행정(Administration)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New-versity
- R 지역(Region)발전에 기여하는 New-versity
- T 재능(Talent)을 함양시키는 New-versity
- Q 품질개선(Quality)활동을 통해 도약하는 New-versity





가장 보통의 존재

편집장 논설

당신에게 '보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보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평범'이나 '중간'이라는 단어의 뜻과 맞닿아 있다. 그 말은 즉, '우수'와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고, '상'(上)과 '하'(下)에서 중간을 잇고 있는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살면서 보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하지만 주로 경쟁에서 비교할 때 사용된다. 우리는 보통을 기준점으로 두고 '그보다 잘하는가, 못 하는가'로 판단하곤 하지만 그 기준점은 상대적이며 시시각각 변한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평범'을 유지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어쩌면 우리는 '평범', 혹은 '보통'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평범'이라는 기준선을 유지하기 위해 이십대를 즐기지 못한 채 한숨과 자책으로 밤을 지새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는 것은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죄책감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작지만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생각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생각보다 '보통'의 단어가 지닌 에너지는 크며,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도 보통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그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달리는 우리가 있다.

"이래도 당신의 보통은 정말 '보통'인가?"

제3대 총장에 강성종 박사 취임

'Top 1' 미래전략 추진 취업명문 New-Versity 실현
의정부캠퍼스에 '평화의 소녀상' 제막
"대학기관평가인증 대비 주력…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신한대학교 제3대 총장에 강성종(53) 박사가 취임했다. 강성종 신임 총장은 다가오는 대학평가인증에 대비하는 등 우리 대학의 당면과제에 진력하기 위해 취임식을 미루고 캠퍼스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강 총장은 취임 직후 대학기관평가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17년 자체점검, 2018년 자체진단평가에 이어 이번에 3번째로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기준에 의거하여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평가영역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고 경영전반에 관한 개선방향과 전략을 마련했다. 자체진단 평가결과는 우리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강 총장은 'Top 1'을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미래전략으로 삼아 '취업명문 New-Versity'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배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도 상시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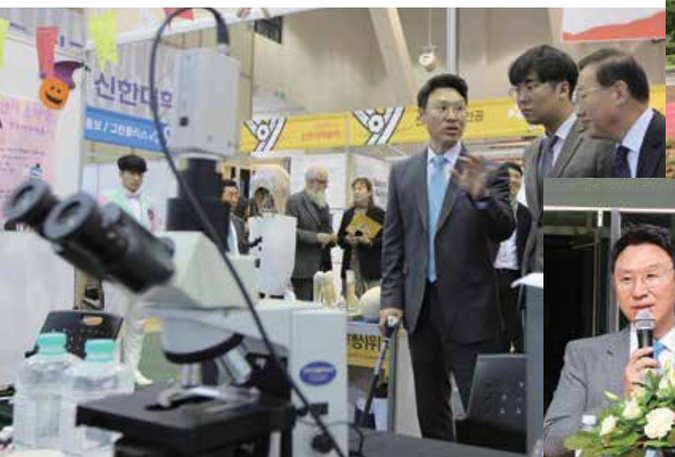
강 총장은 교직원들에게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한 대학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 역량을 강화하여 새 차원의 대학발전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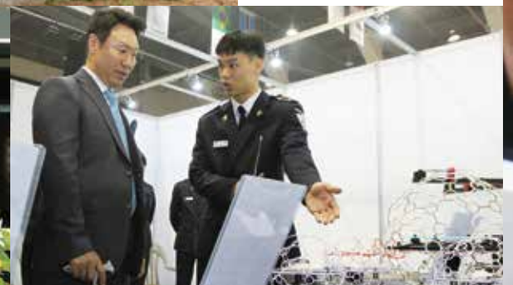
한편 신임 강 총장은 최근 한일갈등과 관련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만행을 역사에 새기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9월 10일 의정부 제1캠퍼스 정문 앞에 기림비와 함께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졌다.

강 총장은 미국 브리지포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경남대학 북한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제17, 18대 국회의원으로 국가경영의 경험을 쌓았으며 제4대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제17~19대 경기도축구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민족아리랑 대표이사, 아시아장애인태권도연맹 부총재, 세계평화태권도페스티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수민 편집장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신한류'의 한판승부

2019 신한대학교 총장배 세계평화 태권도 페스티벌
참가 국가 42개국, 국내·외 참가자만 1만 1천여 명의 대규모 행사
품새·겨루기·격파·K-Pop 태권댄스 등 다채로운 11개 종목이 한 자리에
그동안의 다수의 경진대회 경험으로 더 빛난 대회 진행
박정환(미디어언론학과/2학년) 진행요원 "태권도를 매력적인 스포츠로 다시 보게 돼"
이예지(사회복지학과/4학년) 진행요원 "한 필리핀 선수가 다시 만나자 했을 때 보람 느껴"
선의의 경쟁과 스포츠맨십으로 환호 속에서 막을 내리다



한 선수가 큰 소리로 기합을 넣은 뒤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송판을 향해 발을 길게 뻗자 송판이 산산조각 나며 멀리 날아갔고, 바닥에 착지한 선수가 심판석을 향해 다시 한 번 우렁차게 기합소리를 내자 관중석에서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격한 감동과 여운이 맴도는 경기가 8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제1캠퍼스)에서 이어졌다.

신한대학교가 주최하고 신한대학교 태권도 조직위원회, 태권도교육융합학과가 주관한 이번 '2019 신한대학교 총장배 세계평화 태권도 페스티벌'이 모두의 환호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중국, 필리핀, 스페인, 러시아, 베트남 등 42개국이 참가하고 1만 1천여 명(국내 10,007명, 해외 1,024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품새, 겨루기, 격파, K-Pop 태권댄스 등 11개 종목이 실내체육관, 대강당, 원형극장, 컨벤션홀에서 각각 진행됐다. K-Pop 태권댄스를 비롯해 태권줄넘기, 실버 및 가족태권도, 무도호신술, 무도격파, 태권도복 모델콘테스트 등 이색적인 경기도 펼쳐졌다.

세계평화태권도페스티벌은 세계 태권도인들을 위해 11개 종목에 남녀노소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열정과 스포츠맨십으로 화합하는 평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대회가 아닌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했다. 또한 행사 기간 내 태권도와 컬쳐 학술대회 및 체험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학문적 교류 및 이해를 증진하고, 참가한 외국선수들에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및 관광명소를 소개했다. 이에 강성종 대회조직위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태권도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 세계의 건강을 책임지고 여가 가치를 높이는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각계 인사들도 세계평화태권도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감을 축사를 통해 보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한반도가 평화의 분위기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공격보다 방어를 우선시하는 평화지향적인 태도를 지닌 태권도의 원리가 이 자리를 더욱 빛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태권도의 홍보와 발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태권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공정한 체육 문화 정착과 공평한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안민석 위원장도 "국회에서도 생활체육의 보급과 더불어 태권도를 세계적인 체육 활동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 인터뷰: 경기장 밖의 '선수들' 박정환·이예지 진행요원

대회의 진정한 주인공들은 물론 선수들이었지만, 그들의 뒤에서 말없이 선수들이 경기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힘쓴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신한대학교 학생들인 진행요원들이다.

진행요원들은 행사 기간 동안 경기장 질서를 통제하고, 심판을 보조하고, 경기가 다 끝나고도 밤늦게 남아 경기장을 정리하는 등 폭염 속에서 행사장을 뛰어다니며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애썼다. 그중 열이 나고 다친 진행요원도 있었다.

경기장 밖에서만큼은 선수였던 진행요원들,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박수를 받아 마땅한 그들을 만나 활동소감과 가장 가까이에서 경기를 지켜본 소감들을 들어봤다.

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박정환: 미디어언론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박정환입니다. 주로 본부에서 영어 통역을 맡았습니다.
- 이예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15학번 이예지입니다. 저도 통역을 맡았습니다.

② 진행요원을 하시면서 모든 경기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경기는 어떠셨나요?

- 박정환: 품새 분야는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다보니 조금은 지루했습니다. 겨루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는 맛이 있었고, 태권도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이예지: 모든 경기진행이 다 매끄럽진 못했지만 참가선수들과 지도자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동작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③ 경기장 밖에서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많이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제일 힘들었나요?

- 박정환: 중국인 선수들을 응대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중국어를 못할뿐더러 통역사의 수가 너무 부족하다보니 번역기를 사용하여 겨우겨우 소통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이예지: 함께하는 진행요원들과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경기진행을 총괄해주시는 위원님들이나 선수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④ 힘들었던 만큼 보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 보람을 느끼셨나요?

- 박정환·이예지: 통역을 하면서 필리핀 선수들과 친해졌습니다. 선수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진행본부에 전달하며 그들의 답답함을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요원 활동 중 한 어린 선수가 저에게 오더니 필리핀 관광선물을 주면서 고맙다는 말과 열정에 감사를 표한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4~5개의 선물을 더 받았고,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페이스북 친구도 맺는 등 친목을 쌓았습니다. 몇 명의 관장들은 필리핀 보라카이에 오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진행요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내년에도 또 대회에 참가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⑤ 대회를 지켜보면서 태권도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거나,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었나요?

- 박정환: 태권도라 하면 그저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유년시절의 필수코스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는 진정성 있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느꼈습니다. 태권도라는 스포츠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땀을 흘리는 진풍경을 보면서 다시금 감동했고,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예지: 태권도는 비단 신체만을 무장하고 단련하는 운동이 아니라, 올바른 인격의 성장을 돕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태권도 도장을 다니면서 관장님이나 사범님으로부터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대회를 보면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 심판진과도 서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태권도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두 진행요원 모두 경기를 지켜보고 원래 가지고 있던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선수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쌓고 기념품을 선물하는 등 국적, 인종, 언어,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태권도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 전 세계가 신한대를 주목하다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시범종목을 거쳐,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스포츠이다. 또한 태권도의 역사는 우리 민족사이기도 하다. 태권도는 일제의 탄압으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었지만 전통무예 전승에 대한 선조들의 강한 의지로 살아남았다. 독립군의 훈련방법으로 채택되었고, 광복 이후 부활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해 3월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권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서 그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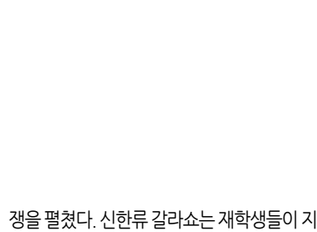
태권도와 마찬가지로 드라마, 영화, K-Pop, 한식 등의 한류는 지속과 성장을 거듭해 '신한류(新韓流)'로 진화했다. 처음 '신한류'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신한대는 그 작은 불씨를 그대로 이어받아 숨결을 불어넣었다.

신한대는 지난 2015년부터 다수의 경진대회(K-pop 뮤직페스티벌, K-pop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신한슈퍼루키 모델콘테스트, 신한류 갈라쇼)를 개최해 다가온 신한류의 윤활유이자 연료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K-pop 뮤직페스티벌은 '페스티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국가, 인종, 사는 지역 등의 구분을 떠나 모두가 K-pop의 매력에 푹 빠지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기능했다. 슈퍼루키 모델콘테스트의 경우 국제대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내외 모델 유망주들이 앞 다퉈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신한류 갈라쇼는 재학생들이 지닌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공연예술학과의 정기공연이나 디자인학과의 졸업작품전 등 그동안 디자인 예술대학이 쌓아온 저력을 뽐내며 신한대학만의 '신한류'로 재창조하기도 했다. 이렇듯 작은 불씨였던 '신한류'에 세계평화 태권도 페스티벌이 더해져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꽃으로 키워냈다.

태권도는 무예와 스포츠를 넘어 세계평화의 상징이자 한류 문화관광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과 북의 태권도 시범단을 통해 보았듯이 태권도는 차가웠던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고, 한국의 역사와 정신, 문화를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결승전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신한대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활짝 웃으며 자랑스럽게 메달을 들어올렸다.

신대현 기자













신한대학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4년제 종합대학 설립



"SUT에 신한대학교의 선진 교육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SUT는 우즈베키스탄 최고 명문대학으로 키워질 것이며,
동시에 중앙아시아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다."

2019년 9월 13일(금) 오전 11시,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대회실에서 SUT(Shinhan University in Tashkent)의 설립을 위한 최종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SUT의 '타슈켄트'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도시로, 유럽과 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신한대학교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4년제 종합대학을 설립하면서 글로벌 교육 리더로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타슈켄트 대학설립 조인식은 신한대학교의 강성종 총장과 학교관계자 및 우즈베키스탄의 교육부 장관 마지도프 이놈 외 각 부처 국장이 참여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진행되었다. 대학설립 조인식에 참석한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은 "우리 학교 (신한대학교)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화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신한대학교는 SUT의 설립을 위해 2018년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와 4년제 종합대학 설립에 관한 MOU를 진행하였고, 2019년 5월 SUT의 사전협약을 진행하였다. 이번 9월 조인식을 통해 대학설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 설치학과와 전공 및 교육과정 개발과 교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교육부)는 신한대학교가 밝힌 계획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대학설립 조인식을 통해 신한대학교는 SUT의 개교 예정일이 2020년 9월임을 밝혔다. 2020년 SUT 개교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타슈켄트 소재의 대학부지 및 토지, 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신한대학교의 선진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3개 학과 (간호학과, 국제 관광경영학과, 패션디자인학과)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학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하였다.

신한대학교는 SUT 산하에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2+2 공동학위제도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학위제도는 두 개의 외국대학에서 공동으로 학위를 주는 제도로, 해외 우수대학의 학문적 성과를 취득하고 학위논문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생들이 신한대학교에서 2년간(3,4학년) 학업을 수행하면, 이를 통해 매년 1천명의 유학생이 유치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게 된다면 2+2 공동학위제도가 향후 신한대학교 글로벌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은 대학설립 조인식에서 SUT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SUT에 신한대학교의 선진 교육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SUT는 우즈베키스탄 최고 명문대학으로 키워질 것이며, 동시에 중앙아시아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다."

신한대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실용학문 중심의 학과운영과 교육시스템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이미 호평을 받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SUT 설립으로 신한대학교의 글로벌화 교육모델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조희지 기자









알려질 수 없었던 '위안부', '평화'의 이름으로 캠퍼스에서 퍼져나가다

신한대학교, '평화의 소녀상'건립 제막식 개최
강성종 건립추진위원장 "역사 교훈을 알리는 공간을 제공해, 역사인식 전환의 기회를 마련"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의 역사를 캠퍼스에 새기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무려 반세기가 더 지난 이야기임에도, 당시 한반도에서 행해졌던 온갖 수탈과 일제의 만행은 오늘날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소송 13년 만에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김규수, 신천수, 여운택, 이춘식)이 있는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문제도 30여 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 어느 사건 하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일 간의 경제 전쟁 등을 일으키며 오직 사건을 덮고 일본의 헌법을 바꾸려는 등 '역사 왜곡'의 노력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양극단을 달리는 한일 간 냉전 분위기 속에서, 지난 9월 10일 신한대학교에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분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그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제막식 행사는 개화사와 특강, 문화공연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본교 교수진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종찬 한민족평화통일연구원장(전 국회의원), 김희선 항일여성독립운동 기념사업회장(전 국회의원), 김재윤 전 국회의원, 이광수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서경 평화의 소녀상 작가, 문재숙 교수, 이용걸 평생교육 총동문회장, 정동희 총학생회장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종찬 한민족평화통일연구원장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헌법을 바꾸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성장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우리가 세계에 알리고 막아야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며 향후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 일러주었다. 더불어, "이번에 설치되는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과 학교 관계자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점에서 감사와 의미를 느낀다"라며 이번에 설립된 소녀상에 대한 소감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백 년도 더 전에 염원했던 동양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오늘날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에서의 '평화'라는 단어가 추구하는 의미를 알아야한다"라며 소녀상을 대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이어진 순서로는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공연이 펼쳐졌다. 문재숙 교수와 김수미(판소리 이수자) 씨 외 2인이 함께 연주한 '잃어버린 행복'이라는 퓨전 국악 곡은 가사를 통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을 대변함과 동시에 모든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당일 제막식의 감동과 의미를 더했다.



강성종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신한대학교 총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투쟁, 용기를 기리고 같은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 캠퍼스에 역사의 교훈을 알리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이 역사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세운다"라고 밝혔고, "이제는 더 이상 '위안부'피해자분들의 겪은 아픔의 역사를 잊지 말자, 기억하고 함께 그분들과 싸워나가자", "그분들이 잃어버린 아름다워야 했을 '소녀' 시절을 기리고 기억해야한다. 일제가 남긴 이러한 잔재들이 사라지기 전까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김서경 조각가는 소녀상의 탄생 배경과 그 의미를 다시금 설명해주었다. "소녀상에는 일제에게서 받은 소녀의 아픔과 고통이 들어있다"라며 간략히 그 의미를 되새겼고, 또한 "오늘날 '위안부'피해자임을 밝힌 많은 할머니들이 평화운동가의 길을 걷고 있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의 의미를 잊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녀상 옆의 빈 의자에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이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해 나갔으면 합니다"라며 소녀상의 빈 의자에 대한 이야기로 작가의 설명을 마쳤다.

실내에서 진행된 모든 제막식 행사가 끝난 뒤, 비가 오는 야외의 궂은 날씨 속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은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거센 비를 맞아가며 한 맺힌 눈동자로 역사와 인근 도시 시설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그날의 '위안부'피해자 할머님들이 오늘날 세상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는 것 같았다. 이날 신한대학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1000번째 수요 집회를 기리기 위해 기획한 동상과 같은 것으로, 원작자인 김운성, 김서경 조각가 부부가 직접 조각한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81번째, 국내 경기북부 대학 캠퍼스 중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점에서 사뭇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번 소녀상 설치는 지역사회와 공동발전을 꾀하는 신한대학교의 발전 이상향을 잘 드러낸다. 교직원 및 학교 관계자들의 기부금 뿐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후원까지 받으며 설치되었고, 설치된 위치 역시 신한대학교와 인근 사회 시설을 잇는 경계점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앞선 강성종 위원장(신한대학교 총장)의 축사에서 밝혔듯 도시와 맞닿은 대학 캠퍼스에 역사교훈을 알리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사인식을 전환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신한대학교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은 비단 국내에만 설치된 조형물이 아니다. 현재는 일본, 미국, 호주 등 해외 14곳에도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평화운동을 지지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일본의 사죄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상징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최근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나고야 아이치 트리엔날레 '정의 시대' 미술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을 형상화해 '표현의 부자유-그 후'라는 주제로 전시됐다가, 일본의 요구로 개막 사흘 만에 중단된 바 있다. 이는 일본이 아직까지도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고 감추려 하는 치부인지 잘 드러내는 점이다. 이번에 설치된 소녀상도 해당 작품과 동일한 것으로, 소녀상 건립을 통해 일본의 야욕에 맞서겠다는 신한대학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국과 전 세계의 소녀상들에 얽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에 설치된 소녀상은 일본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호주 에쉬필드 연합교회에 처음 설치할 당시에는 일본을 지지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시위도 겪었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부산동구청에 의해 불법 시설물로 간주되어 강제로 철거되었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다시 설치된 적도 있다. 이처럼 '평화'를 외치는 소녀상은 많은 무력으로 수난을 겪어왔다.





오늘날 일본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명분으로 수출규제와 백색 기업 명단 제외 등의 경제 수단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과거 일제의 침탈과 만행에 의해 피해를 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힘'으로 덮으려는 명백한 '역사왜곡'을 진행 중인 것이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도 불매운동과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본이 외면하는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3월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중 두 분(곽예남, 김복동)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피해자 할머니들은 총 21명만이 생존해계시고,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역시 네 명 중 한 분만이 생존하셔 판결을 직접 보셨다.

그래도 최근에는 비교적 일제의 '역사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위안부'피해자 중 한 분이신 김복동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이 개봉하는가 한편, 신한대학교처럼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유린하고, 아직까지도 그때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에게 저항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각'이다. 1919년, 일제의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도 선조들께서 평화 만세 운동과 자각으로서 저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 일본의 침략 야욕에 저항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지난 27년간 일본과 투쟁하다 지난 3월에 눈을 감으신 김복동 할머니의 어록 중 일부이다.
"내 살아생전에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여 끝을 볼 것이다.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내겠다."

이번에 신한대학교 캠퍼스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계기로, 많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해당 사건에 눈을 뜨고, 김복동 할머니 및 일제 만행 피해자분들의 못 다 이룬 싸움을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신한대학교 '평화의 소녀상'에 새겨진 기림비명은 아래와 같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에 의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13개국 여성과 소녀 수십만 명은 이른바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제국주의가 자행한 인권유린의 고통을 당했다.

수많은 조선의 여성들은 단지 조선에 태어났다는 죄만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일본제국주의의 비인도적 범죄는 지금도 정의를 구현하려는 세계인의 마음속에 반역사적 폭력으로 새겨져 있다.

이 기림비는 평화, 인권,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는 징표이며 돌이킬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를 영원히 기억하고 일본의 만행은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모두 평화의 역사를 써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책임의 상징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이 잊혀지는 일"이라는 증언과 함께 일본제국주의의 반인륜적 만행을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역사에 세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9)

김민성 기자



해외로 뻗어나가는 '신한국인(信韓國人)'의 봉사정신

해외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향상 학생 주도적 형태의 프로그램,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한대학교의 교육이념 중에는 '섬김을 위한 영성교육'이 있다. 신한대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봉사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단어, '봉사정신'은 '자기희생'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한다. 두 단어 모두 남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희생함으로써 타인의 행복과 복리가 증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서나 강조하는 말이지만 '자기희생'과 같은 의미 때문에 선뜻 시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그렇기에 봉사활동은 그저 '스펙'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여기에 범지구적 인류애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신한대학교의 '로고스봉사지원단'이다.

2012년 9월 신한대학교의 전신인 신흥대학교 시절, 단장 1명과 조교 1명으로 시작한 로고스봉사지원단에서 현재는 2017년 기준 1,80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는 봉사활동의 핵심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여름 로고스봉사지원단이 몽골로 떠난 이유이다. 봉사활동의 참된 가치를 실현한 것이다.

이렇듯 로고스봉사지원단은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신한인을 양성하며, 몽골 현지 학교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시해 해외 현지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몽골에서의 해외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향상과 동시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기독교적 사랑과 나눔을 전파하였다. 그야말로 봉사활동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박 8일 동안 진행된 몽골봉사활동의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인 만큼 다채롭고 유익했다. 첫 번째, 한국어 관련 프로그램으로 한글(자·모음, 단어)교육, 한글 티셔츠 만들기 활동이 있고, 그 다음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꼬리잡기, 판 뒤집기, 부채·에코백 꾸미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세 번째로,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탈 만들기, 3D 문화재 퍼즐 만들기, 핸드플래그와 번개장터 및 행복 나눔 박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의료봉사의 일환 중 하나인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매년 진행하는 봉사활동이지만 달라진 점도 있었다. 항상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짜여진 상황에서 진행하곤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팀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 주도적인 형태의 해외봉사 프로그램이 된 것인데, 오히려 변화된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한 만큼 현지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회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보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수단'에 불과할 봉사활동이겠지만, 로고스봉사지원단에게는 자신과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는 숭고한 행위 그 자체이다. 이들의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나비효과가 되어 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길 바란다.

최수민 편집장

공부도 맞들면 낫다, ‘신한스터디’

[신한대 스터디①] 유아교육학과 스터디 그룹 [사망년을 이기자!] 인터뷰
[신한대 스터디②]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스터디 그룹 [안중근] 인터뷰
선발된 우수 스터디그룹은 상금과 장학금 마일리지 150점 지급돼

인터넷 검색창에 ‘스터디’를 검색만 해도 ‘소규모 스터디’, ‘스터디 그룹 어플’ 등 스터디 그룹을 원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수두룩하다. 스터디 그룹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부 방향과 잘 맞지 않아서, 혹은 팀원들과의 성격 차이로 스터디를 쉽게 그만두곤 한다. 이렇듯 우리가 아는 ‘스터디 그룹’은 보통 그만큼 정보를 찾고 들어가는 과정까지가 수월하지 않고, 나올 때는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경제적, 시간적 소비가 크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신한대학교의 스터디 그룹은 다르다. 동일 학과 혹은 다른 학과 학생들 중 스터디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서를 제출하면 ‘스터디 그룹 학습목표의 명료성’, ‘그룹원 간 진행방법 및 역할분담의 정확성’, ‘신청서 작성의 성실성 및 진실성’이라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거친다. 이후 선발된 스터디 그룹은 지원금을 받으며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다.

사실 스터디를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전적인 것이다. 금전적인 부분의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스터디의 결과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간파한 신한대학교 교수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기꺼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준다. 스터디 우수 그룹으로 선발된 스터디 그룹은 상금과 함께 장학금 마일리지 150점이 주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년도 신한스터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2019학년도 1학기 신한스터디 그룹 지원자는 모두 128팀이었으며, 기존에 선발 예정이던 50팀에서 20팀을 추가 선발하여 최종 70팀을 선정했다.



[신한대 스터디①] 유아교육학과 스터디 그룹 [사망년을 이기자!] 인터뷰

이보배 팀장 "나태해지기 쉬운 학업을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줘…"
팀원들 "향후 목표는 꾸준히 학업에 집중하는 것"

유아교육과 학생들로 구성된 [사망년을 이기자!] 그룹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되었다. 유아교육과 커리큘럼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올데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올데이'는 학생만의 힘으로 유치원의 하루를 직접 운영해보는 과제로, 3학년 과제 중 가장 힘든 실습으로 꼽히는 과제입니다. 이를 비롯해서, 3학년에는 다양한 실습 과제가 포진되어 있어 우스갯소리로 '사망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희 팀은 이 '사망년'을 성공적으로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장 이보배 학생의 말이다.

그룹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유아교육과의 특성상 조별 과제의 비율이 많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쭉 같은 조를 해오던 학우들끼리 쉽게 그룹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이다. "전공 특성상 교구(교육에 쓰이는 도구, 기자재 등)를 직접 만들어야 할 때가 많은데, 서로의 장단점이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역할분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이 팀원들의 설명이다. 의견을 내거나 스터디 계획을 짤 때는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역할분담을 통해 각자 착착 진행하는 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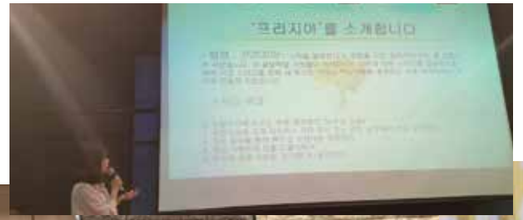
스터디그룹을 구성하게 된 계기는 명확했다. "교보재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 때문에 준비물에 드는 비용이 많은 편인데, 지원금을 제공해 줘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이외에도 스터디 그룹 구성이 가져다주는 이점에 대해서, 팀원들은 스터디 그룹 활동 보고서 제출을 꼽았다. 자칫 나태해 지기 쉬운 학업을 보다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실제로 모였다는 증거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향후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확실히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사망년을 이기자!] 팀의 향후 목표는 꾸준히 학업에 증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팀원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 '올데이' 의 준비 과정 자체가 시험 준비이자 실습 준비, 그리고 직업 훈련에 가깝기 때문에 진짜 '올데이' 실습이 끝나도 비슷한 활동을 진행하여 향후 보육 실습에 적용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망년을 이기자!]의 팀원들은 유아교육과만의 특성으로 '융·복합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학과'라는 것을 꼽았다. "갈수록 유아교육에 있어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그것을 진행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부터 창의성을 길러야 한다는 말과 같다. 예컨대 유아교육과 전공 커리큘럼에 새로 추가된 유아, 문화, 예술, 교육에서는 동영상 편집 기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교육, 드론 조립 및 비행을 통한 유아 교육 등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신한대학교 스터디 그룹 지원 사업과 맞물려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한대학교 스터디 자체에는 불만이 없지만, 향후 스터디 그룹의 전체 수와 각 스터디의 제한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말로 좋은 정책인데 혜택을 받는 학생이 적은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또한, 홍보 역시 보다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우리 팀도 팀장인 이보배 학생이 신한 스터디그룹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스터디 그룹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학생들 역시 신한대학교 스터디 그룹 정책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스터디 그룹 [사망년을 이기자!] 팀은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 이보배, 팀원 권혜민, 조지선, 이선우, 박서연, 이현지의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한대 스터디②]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스터디 그룹 [안중근] 인터뷰

스터디원 5명 중 3명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 2차 필기시험 합격
이경영 팀장 "스터디는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어 공부에 도움 돼…"

"저희는 일부러 서로를 공격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독기가 돼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서로에게 자극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에 불타올랐어요."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이경영(3학년) 학생은 스터디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두 번째로 만난 신한대 스터디그룹 [안중근] 팀의 팀장 이경영 학생은 스터디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학생이었다. [안중근]이라는 팀명도 학과의 특성과 스터디에서 다루는 주제와 맞게 적절하게 지었다. '안전이 중요한 근본이다'라는 말을 줄여 탄생한 팀명이 바로 [안중근]이다.

이경영 학생이 스터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평범했다. 주간식단을 보려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우연히 스터디그룹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제는 정해진 10번의 활동을 초과했다. "한 주에 두 번씩 활동할 때도 있고, 보통 한 번 스터디를 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한다"는 그는 "더 이상 활동일지에 활동내용을 적을 칸이 없을 정도"라며 스터디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다.

스터디를 통해 얻은 결과는 확실했다. 스터디원 5명 중 3명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 2차 필기시험에 합격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3차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이경영 학생이 처음 스터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성적 향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스터디를 진행하며 자동차에 대해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자격증도 공부하다 보니 안전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며 "승객의 안전, 운전자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직 정확한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다음 학기를 위해 좀 더 준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스터디 방식은 토의와 오답노트 작성 위주였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안전제도, 배출가스 제도, 인증제도 등과 같은 제도들을 공부하고, 이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 서로 토의를 하는 방식이었다. 각자 틀린 문제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해설을 정리했다. 직접 본 이경영 학생의 오답노트는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꼼꼼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지도교수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이경영 학생은 "스터디 카톡방을 개설해 한 주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 5가지를 골라 정리해서 카톡방에 올리면 서로 문제를 공유한다"며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틈틈이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동차 관련 사건·사고, 이를테면 작년 BMW 화재사고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에 대해 스터디를 진행한 적도 있었다. 그는 "교수님이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자문을 나가신 적이 있다"며 "교수님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얻고 수업도 들었다"고 말했다.













철저한 방학 계획도 세웠다. 이경영 학생은 “방학 때 교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차를 스터디원들과 직접 분해해 보고, 조립해보며 부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외우는 수업을 하려고 한다”며 기대했다.

이경영 학생은 전체적으로 활동에는 만족을 나타냈지만 더 나은 스터디를 위한 개선사항도 제시했다. 바로 스터디 공간의 미흡함이었다. 그는 “(스터디) 공간이 부족해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스터디를 진행했고, 도서관의 스터디룸을 이용하기에는 접근성과 시간에 제약이 있어 이용이 어려웠다”며 “지정된 스터디룸의 이용시간 연장과 휴일에도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경영 학생은 ‘다음 학기에도 스터디를 계속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않고 바로 “네”라고 답했다. 더 나아가 그는 “스터디를 후배들이 적극 나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다면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돼서 앞으로 전공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스터디 할 것을 독려했다.

같은 스터디그룹 팀원인 전의성(3학년) 학생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받았고, 모르는 것을 배우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김수종(3학년) 학생은 “전공 공부에 대한 실력과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중간·기말 시험 보는 데 수월했고, 공부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했다.

스터디 우수그룹으로 선발된 스터디그룹은 상금과 함께 장학금 마일리지 150점이 주어진다. 2019년 1학기 신한스터디 우수 스터디 최우수상은 유아교육과의 [에이쁠]팀이, 우수상은 치기공학과의 [N.T.S], 유아교육과의 [사망년을 이기자!], 치위생학과의 [구강구조]팀이 수상했다. 우정도 키우고, 마일리지도 쌓고, 학업에도 도움이 되는 스터디 그룹 활동으로 보람찬 대학생활을 즐겨보는 것이 어떨까?

박현규, 신대현, 최수민 기자





변화를 위한 발돋움, 신한대 대규모 전임교원 채용

직전학기 대비 약 13%(26명)의 교원 추가 확보… 교원 확보율 100% 달성
각종 연구 활동 및 우수 경력을 지닌 전임교원 대거 임용
박효철 교무연구처 처장 "신규 교원은 학생들의 역량 증진에 탁월한 기여할 것"

2019년 기해년의 시작과 함께 신한대학교에는 많은 변화들이 함께 뒤따랐다. 4년제 종합 대학으로의 개편 6년째에 접어드는 신한대학교는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일반대학원 증설과 신한 메디컬센터의 설립, 새로운 학과의 설치 등 유독 올해 눈에 띄는 많은 변화들을 감행했다. 이에 발 맞춰, 신한대학교는 증설된 대학원과 더 다양해진 학과 및 개편된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의 신규 전임교원을 임용하였다.

2019년도 1학기를 맞이하며 신규 채용된 전임교원은 일반학부와 교양교육원, 대학원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담당할 인원으로, 총 26명(학부 학과 12명, 교양교육원 10명, 대학원 학과 4명)이 임용되었다. 이는 직전학기(2018년도 2학기)에 신한대학교 전임교원의 수가 202명이었음을 고려하면 한 학기 만에 약 13%를 더 확보한 것이며, 이는 신한대학교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채용이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대학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신한대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임교원을 대규모로 채용한 것이 신한대학교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신한대학교는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 그 기틀을 확고하게 다지고, 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수 교원을 대거 임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신한대학교의 대규모 교원 채용에 교무연구처의 박효철 처장은 "이번 대규모 전임교수 채용은 우리 대학교의 이념과 각 학과의 전공역량을 함양할 교육과정 담당 교수를 임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라며 채용의 의의를 정의했다.

2019학년도 1학기에 전임교원을 대거 신규 채용하게 된 최초 배경은 일반대학원 정원의 순증(학부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대학원 정원을 늘린 경우)으로 인해 교육부가 요구하는 교원 확보율 100%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신한대학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창학이념, 대학의 사명,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그리고 핵심역량 강화 등 대학의 이념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각 학과의 전공역량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 박효철 처장의 설명이다.

신한대학교는 산업계 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들의 의견까지 심도 있게 수렴하고 분석하여, 올해부터 각 학과의 전공교육 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바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음을 맞춰 학부 및 대학원, 그리고 교양교육원의 교육과정까지 재편성하였다. 교육과정의 대규모 개편 배경에서 해당 교과를 담당할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신한대학교로서 어쩌면 당연한 결정으로 보인다.

신임교원 채용과정은 '기초전공심사', '강의평가', '면접심사'로 총 3단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올해의 경우, 모든 모집분야마다 지원자가 많아서 1단계 기초전공심사(전공일치, 연구실적, 산업체 경력, 교육경력, 연구계획서 등) 업무가 폭주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토록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연구실적과 경력이 우수한 교수진이 많이 채용되었다. 박효철 처장은 "첨단 신학문 분야 연구 능력과 글로벌 산업체 경력을 가진 신규교원은 학생들의 창의, 소통, 도전 역량을 더욱더 함양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며 이번 경쟁률을 뚫고 채용된 신규 전임교원들의 실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치위생학과 조한아 교수는 SCI(E)급 학회지인 'BMC Oral Health'를 비롯하여 많은 논문을 게재 및 발표하였으며, 섬유소재공학과 강찬솔 교수는 'Fibers and Polymers'를 비롯한 SCI급 학회지에 꾸준한 논문 발표와 3건의 특허 등록 실적까지 있다. 교양교육원의 이덕일 교수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으로 15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구, 저술, 강연, 언론기고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1997년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를 시작으로 한국사

No	소속	성명	전공	학위명	No	소속	성명	전공	학위명
1	치위생학과	조한아	치의학	치의학박사	14	교양교육원	임동현	근대사	문학박사
2	임상병리학과	한경희	역학및질병관리 분자생물학	보건학석사 이학박사	15	교양교육원	강석만	철학	철학박사
3	간호학과	이정은	교육심리전공	교육학박사	16	교양교육원	박수근	스포츠사회학	체육학박사
4	사회복지학과	유경근	사회복지	사회복지학박사	17	교양교육원	서동수	현대문학	문학박사
5	미디어언론학과	김대근	영상미디어	영상매체학박사	18	교양교육원	김태우	국어국문학	문학박사
6	국제어학과	잔도란 리미스	동아시아 언어 및 문헌	문학석사	19	교양교육원	권순자	중어중문학	문학석사
7	국제어학과	유창리	관광경영학	경영학박사	20	교양교육원	안진예	생산및경영과학	경영학석사
8	국제어학과	권운영	중문학	문학박사	21	교양교육원	상가흔	유아교육	교육석사
9	전자공학전공	전유찬	통신시스템기술 전자전기컴퓨터공학	공학석사 공학박사	22	교양교육원	민원표	교육학	교육학박사
10	섬유소재공학과	강찬솔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	공학박사	23	예술심리치료학과	강선옥	스포츠윤리	체육학박사
11	패션디자인전공	한왕모	텍스타일디자인전공	디자인학박사	24	예술심리치료학과	임애련	아동주거학과	이학박사
12	태권도교육융합전공	권경상	체육학	이학박사	25	국제개발협력학과	정우용	국제개발학	국제개발학박사
13	교양교육원	이덕일	한국사	문학박사	26	통합대체의학과	김정헌	한의학	한의학박사

전반에 걸친 60권 이상의 교양학술서를 저술하였다. 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의 정우용 교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채 1기로 입사하여 20여 년간 기획, 예산, 정책, 사업, 조달, 지역 등 다방면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베트남, 이집트, 파라과이 등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은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이다.

또한, 통합대체의학과의 김정헌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암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의학과 의학을 과학적으로 접목한 한의학 전문가이다. 이 외에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부장급 경력을 지닌 임상병리학과의 한경희 교수 등 신학문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 실적과 산업체 경력이 탁월한 전임교원을 대거 임용하였다. 이에 박 처장은 "교원확보율 100%로 수업의 질 제고는 물론, 우리 대학이념과 맞고, 4차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최근 국내외 산업 및 사회적 흐름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한대학교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학부와 대학원, 교양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편하고 이를 담당하게 될 교원을 임용한 것이다. 박 처장은 "앞으로도 신한대학교는 국내외 사회적 흐름을 직시하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원을 적극 채용하여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해 26명이라는 전임교원들을 채용한 것은 '변화'와 '발전'을 향한 신한대학교의 강한 의지와 최고의 지성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지향점을 시사한다. 전임교원 채용으로 신한대학교의 교원확보율은 100%에 달했고, 이번에 채용된 전임교원들은 변화에 직면한 학생들의 뒤를 든든히 받쳐줄 것이다.

끝없이 격동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결 속에서, 신한대학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 보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에 따라 학교의 수준은 지금까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의 수준은 졸업생의 수준을 결정하고, 졸업생의 수준은 대학의 수준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지속한다면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 지식사회는 신한대학이 선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민성 기자



서비스디자인,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4차 산업 기반의 사회기여형 창의·융합 서비스디자인 특성화사업
디자인학부 강성현 학부장과 박현철, 이선민, 신유지 교수를 만나다
다섯 개의 랩(LAB)으로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플랜 제시

기존의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중 디자인은 '시각적 영역'이라는 추상적이며 단편적인 분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2019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바람과 함께 신한대학교가 변화하고 있다. 바로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여형 창의융합 서비스디자인 특성화 사업'이다. 신한대학교는 디자인의 무한한 잠재성을 교육에 적용시켜 배움의 폭을 더욱 넓히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학문을 넓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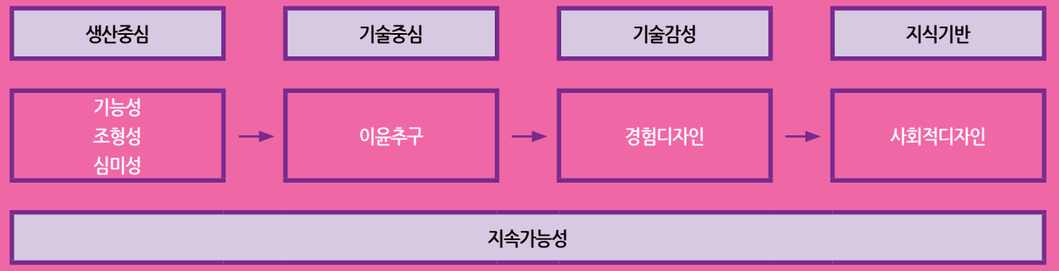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그 중요성만이 강조되는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목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환경에서, 신한대학교가 4차 산업 환경에 대비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디자인학과의 서비스디자인 특성화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걸맞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디자인'이란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 방법을 적용시키는 방식의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유도할 수 있다.

신한대학교는 이를 위해 양적 차원의 전략에서 질적 차원의 전략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기존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산업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존보다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도 더 많은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산업으로 변화시켜 기존 산업이 지닌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먼저 질적 차원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 서비스화를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서비스디자인인 것이다.

IT기술과 미디어 혁명 등 각종 과학기술의 성과가 사회나 문화, 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요자를 필요로 하고, 수요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 그로인해 수요자, 즉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과 기술 역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은 인간 중심의 서비스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기존 산업에서 디자인은 '스타일링' 위주의 한정적인 분야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서비스디자인'이라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의 방법과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이로써 인간을 위한 보다 심층적인 분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공적인 '서비스디자인'을 위해서는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요소(사람, 사물, 감성, 공간 등) 및 경로를 예측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교육 및 학습이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디자인 특성화가 4차 산업 환경을 위한 초석으로써 보다 적절한 사업임을 의미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바람 속에서 디자인예술대학의 디자인학부에서는 디자인의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으로 '4차 산업기반의 사회기여형 융합 서비스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프로그램의 목표 중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며 추구하는 가치와 미래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융합형 서비스디자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한류 문화예술과 더불어 서비스디자인 분야의 창의 비즈니스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서울 중심권 및 경기북부 지역 특화 전략산업 인프라 연계를 활용한 실무 중심의 융합형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MD(Merchandiser) 및 사회적 공유가치 향상을 위한 융합형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이다.



"디자인의 가치와 패러다임의 변화는 디자인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융합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신한대학교는 4차 산업기반의 사회기여형 창의융합 서비스디자인 LAB 운영 사업으로 사회기여형 창의융합 서비스디자인 LAB 운영 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의 목적은 서비스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과 창의 융합형 LAB 구축에 있다.

1) 디자인공모전 LAB

디자인 공모전 LAB	
운영목표	공유가치 '신한류' 서비스디자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기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방식 및 체계	① 중심전공 :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디자인 + 전체 전공 ②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개설 ③ 공공 공동 스튜디오형 실습실 운영 계획 ④ 공유가치 지향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학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운영 ⑤ 국내외 공모전 출품 및 전시 ⑥ 서비스디자인 정책 및 대안 제시 ⑦ 정부기관 및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기대효과	교육 수요자 중심의 비교과 과정의 실험적 교육모델 개발 공유가치 및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다학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서비스디자인 프로그램 확대 운영

2) 디자인 Biz LAB

디자인 Biz LAB	
운영목표	디자인 프로그램의 융복합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향상과 지역 특화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전문분야의 창업 및 취업기회 확대
운영 방식 및 체계	① 중심전공 :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 전체 전공 ②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③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비즈니스 수익모델 창출 ④ 산업디자인 : 디자인 트랜드 조사 및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씽킹(Thinking) 프로세스 + 3D 프린팅 기술 활용 ▶ 디자인 Biz Model 개발 ⑤ 패션디자인 : 패션디자인 전공의 아이템 개발이 용이한 창업 모델 개발 및 브랜드 런칭 ⑥ 분야 간의 독립적인 디자인 제작/생산 방식에서 분야 간 융합 교육 및 프로젝트 중심의 디자인 비즈니스 교육 체계 구성 ⑦ 기업 및 디자인 닥터 양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⑧ 지역 특화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대효과	예비 핵심인재 발굴 및 우수 콘텐츠의 창작 유도 활성화 기대 창의적이며 확산 가능성 높은 브랜드 및 타 전공자들의 디자인 능력 향상 디자인 전문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학생들의 창업 역량 강화 타 분야로의 진입을 위한 역량개발 교육 제공 필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역량 개발 확대

3) 퍼스널 INNO LAB

퍼스널 Inno Lab	
운영목표	다양한 학과, 전공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디자인 프로그램의 융복합 교육을 통한 전문분야의 취업기회 확대
운영 방식 및 체계	① 중심전공 :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디자인 + 전체 전공 ② 공공 공동 스튜디오형 실습실 운영 계획 ③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계획 ④ 디지털 콘텐츠 제작 + 디지털 프로그램 활용 ▶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UCC, 디지털 그래픽, 음원 및 영상제작 등)와 연계한 과정으로 관련 다양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 배양 ▶ 디자인 콘텐츠 클라우딩 플랫폼 구축 ⑤ 산업디자인 :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 전체 전공 ⑥ 공간디자인 :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과정 + 전체 전공 ⑦ 패션디자인 : 패션 및 퍼스널 이미지 코디네이터 과정 + 전체 전공 ⑧ 디지털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과정
기대효과	교육 수요자 중심의 비교과 과정의 실험적 교육모델 개발 운영 예정인 4개의 특성화 랩과 다양한 연계성을 통한 전문적 과정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결과물 전시 및 홍보를 통한 특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및 교육 참여 모색

4) D+ LAB

D+ Lab	
운영목표	재능나눔 및 창의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디자인 및 공연예술 전공자들의 사회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방식 및 체계	① 중심전공 :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디자인, 공연예술 ②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기초연구 ③ 공공 공동 스튜디오형 실습실 운영 계획 ④ 디자인 재능나눔 사회참여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⑤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창의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디자인 및 공연예술 전공자들의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 함양 공유가치 기반의 사회 기여형 인재 양성

5) 뮤즈 & 드라마 LAB

D+ Lab	
운영목표	비전공자에게 공연예술에 대한 기회 제공과 자기 개발
운영 방식 및 체계	① 중심전공 : 공연예술 + 전체 전공 ②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기초연구 ③ 신한류 창작문화 확산을 위한 공연예술 참가 확산: K-Pop 뮤직페스티벌, 스트리트 댄스, 뮤지컬, 교육연극, 스피치 및 레크레이션 과정 ④ 문화예술 재능나눔 사회참여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연극장면 만들기, 스피치, 레크레이션, 뮤지컬, 교육연극, 방송댄스 등 ⑤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⑥ 각 수업 당 수강 예상인원은 10명(소수인원을 위한 집중수업)
기대효과	비전공자에게 공연예술에 대한 기회 제공과 자기 개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증명 발급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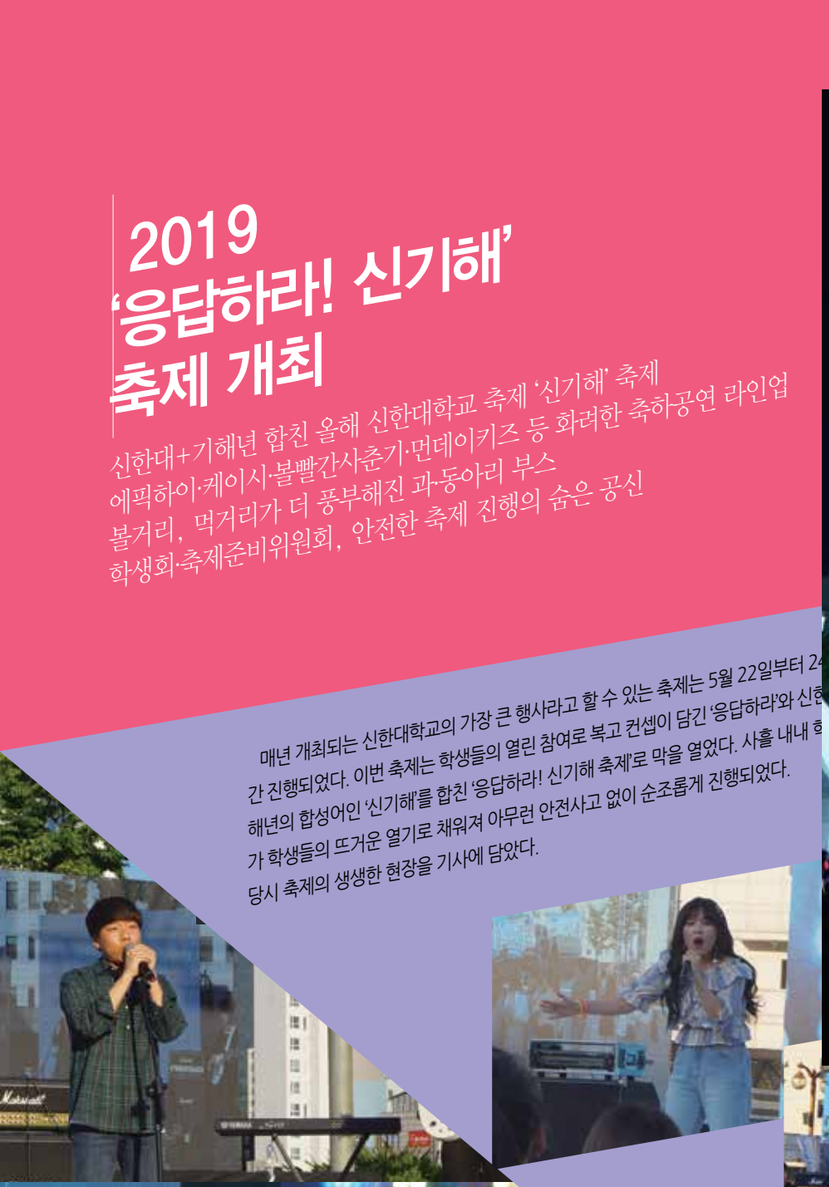
시대의 변화 속에서 창의·예술적 감성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융·복합 Lab 프로그램'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내 다양한 전공 분야 전공자들과의 협업으로 상호 공감하고, 융합함으로써 창의 융합형 커리큘럼 체계화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가치융합 디자인을 중심으로 민간 및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전문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수민 편집장

2019 '응답하라! 신기해' 축제 개최

신한대+기해년 합친 올해 신한대학교 축제 '신기해' 축제
에픽하이·케이시·볼빨간사춘기·먼데이키즈 등 화려한 축하공연 라인업
볼거리, 먹거리가 더 풍부해진 과·동아리 부스
학생회·축제준비위원회, 안전한 축제 진행의 숨은 공신

매년 개최되는 신한대학교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축제는 5월 22일부터 24
간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는 학생들의 열린 참여로 복고 컨셉이 담긴 '응답하라'와 신한
해년의 합성어인 '신기해'를 합친 '응답하라! 신기해 축제'로 막을 열었다. 사흘 내내 학
가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채워져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당시 축제의 생생한 현장을 기사에 담았다.













- 첫째 날(5월 22일) -

■ 2018 '라온제' 때보다 뜨거웠던 E스포츠 대회

대운동장에서 'E스포츠(E-Sports)' 대회 결승이 열렸다.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에서 인정받은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2018년 '라온제'부터 진행된 신한대학교 축제의 새로운 행사이다. 학생들은 운동장에 설치된 전광판 앞에서 경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임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 환호와 아쉬움의 함성소리를 번갈아 냈으며, 해설자는 실제 아시안게임을 해설하는 것처럼 긴장감 넘치는 표정과 놀라운 언변으로 학생들을 몰입시켰다. 올해 E스포츠 종목 에서는 식품조리학부가 '리그 오브 레전드(LOL)'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 무대 위의 별, 댄스동아리 '홍'

축제의 절정은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7시 40분부터 신한대학교의 대표 댄스동아리인 '홍'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무대 뒤에서 떨고 있던 학생들은 음악이 시작되고 무대에 오르자 분위기를 띄우며 끼를 발산했다. 관객들은 그들의 무대를 보기 위해 점점 무대 앞으로 다가왔다. 노래를 따라 부르고 무대 위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 등 크게 호응하기도 했다. 무대 음악은 '비올레타', 'Fancy', 'Break free' 'Swalla' 'Does', 'Just got paid', '멍청이', '7 rings', 'Swish swish', 'Kill this love' 순으로 진행되었다. '홍' 학생들의 춤은 동아리 시간 외에 개인 시간까지 투자한 3개월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 무대였다.

■ 가슴 뛰게 하는 퍼포먼스와 울림, 힙합동아리 '악당'과 음악동아리 '소리패'

'쇼미더 머니', '고등래퍼'가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만큼, 힙합 동아리 '악당'의 공연 역시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악당은 관객들과 호흡하며 무대의 열기를 달궜다. 동아리 '소리패'는 어쿠스틱,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소리패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체감하게 했다. 해당 무대에서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7rings', 트와이스의 'fancy',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등의 노래들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색다르게 즐길 수 있었다.

■ 숨겨진 끼를 발산하다, '청춘가요제'

오후 6시 20분부터는 신한대 교육방송국 S.E.B.S가 주최한 '청춘가요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율, 그리고 5월'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본선에 진출한 총 20팀의 참가자들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쳤고, 관객들 또한 그들의 뛰어난 노래실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우열을 가르기 힘든 뜨거운 경쟁 속에서 1위를 차지한 건 행주의 'Red Sun'을 부른 글로벌관관경영학과 김범수 학생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를 부른 공연예술학과 김재혁 학생과 Adele의 'Rolling In The Deep'을 부른 미디어언론학과 도정아·박현하 학생이 당당하게 공동 2등을 수상하였다.



■ 축제에 감미로움을 더하다, 먼데이키즈·볼빨간사춘기

저녁 무렵부터 치러진 각종 공연의 열기를 이어받아 대망의 첫 연예인 공연이 펼쳐졌다. 축제 첫 날 연예인 공연은 '먼데이키즈'와 '볼빨간사춘기'가 장식했다.

재학생들의 무대로 이미 달아오른 열기를 이어받아 처음 무대에 오른 먼데이키즈 이진성은 '이런 남자', '네가 떠난 그날', '가을안부', '여행을 떠나요', '슬픈 인연' 등의 곡을 불렀고, 무대호응에 반응하여 지급된 물병을 학생들에게 뿌리는 팬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외에도 팬서비스 차원에서 엠씨더맥스의 '어디에도', YB의 '흰수염고래' 등 타 가수의 곡도 짧게 소절 단위로 불러 축제의 본격적인 밤 분위기에 감성을 더했다.

그렇게 30여분의 시간 동안 무대를 불태우고 내려간 먼데이키즈에 이어, 첫날의 마지막 공연은 볼빨간사춘기가 장식했다. 볼빨간사춘기의 안지영은 무대 시작부터 능숙한 솜씨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무대를 만들어나갔다.

이날 볼빨간사춘기는 '별 보러 갈래', '썸 탈거야', 'You', '나만 봄', '여행', '우주를 줄게' 등의 여러 히트곡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연 도중 무대 위에서 내려와 펜스 바로 앞 관중석까지 나아가 학생들과 소통하며 자신들만의 무대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펜스 내에서 무대를 관람한 한 장애인 학생에게 악수를 건네는 훈훈한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렇게 30여 분 정도가 흘러, 학생들의 무수한 앵콜 요청에 응하여 직접 듣고 싶은 노래를 물어보고 마지막 곡으로 '심술'을 부른 후 공연을 마쳤다.

■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넘쳐났던 부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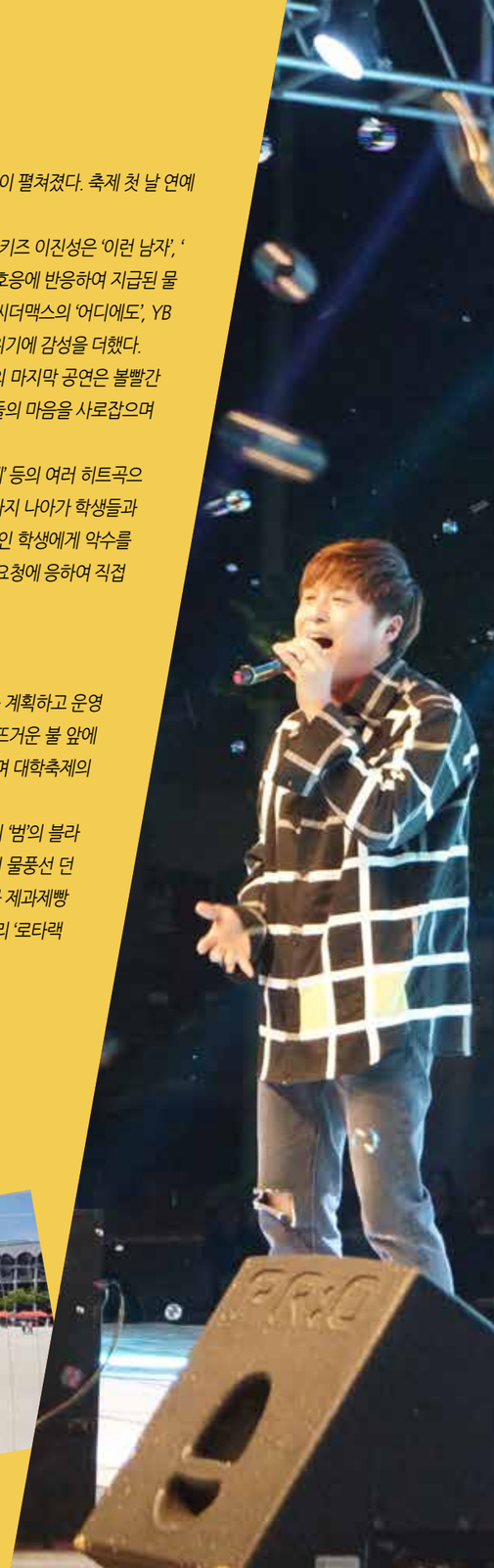
부스는 학과와 단과대, 동아리 등 단체로 이루어져 운영됐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부스를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학생들 간 단합된 모습은 물론, 부스 운영을 즐기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그들은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을 끌어 모으고, 준비한 것들을 판매하고, 이벤트와 게임을 진행하며 대학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 학생들은 여러 부스들에 참여하며 축제를 즐겼다. 부스는 밴드동아리 '범'의 블라인드 소개팅 부스, 공연 동아리들(범, 소리패, 악당, 홍)의 버스킹 공연 부스, 섬유소재공학과의 물풍선 던지기 부스뿐만 아니라 각 과의 특성을 살려, 패션디자인과의 액세서리 판매 부스, 외식조리전공 제과제빵 동아리의 쿠키 판매 부스, 환경동아리 '그린폴리스'의 친환경 수제 페브리즈 판매 부스, 문화동아리 '로타랙트'의 다문화 의상 착용 부스 등 총 33개 부스가 운영되었다.











- 둘째 날(5월 23일) -

■ 틈새를 공략하라

니치버스터

전 대우주

는 첫

■ 따뜻

각 6개 학

의 등장부터 관중

이시는 따뜻한 보컬과

케이시는 '굿모닝(Good

요' 등 자신의 히트곡들을 불렀

담기도 하며 각자의 방법으로 무대를

작은 불빛으로 공연장을 물들였다.

케이시는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로 앵콜을 요청했고, 케이시는 다시 무대에 올라 Al

의 'Havana' 등의 유명한 팝송들을 학생들과 함께 짧게

무대를 내려갔다.

■ '떼창'의 진수를 보여주다, 에픽하이

축제의 마지막 밤은 '에픽하이'가 화려하게 장식했다. 마지막 주자답게 에픽하이는 오후 9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열띤 공연을 펼쳤다. 에픽하이는 '우산', 'One', 'BORN HATER', 'Run' 등의 히트곡을 불렀고, 학생들은 '떼창'으로 화답했다. 특히 에픽하이는 공연 중 앞에 놓인 생수통에 든 물을 관객석에 뿌리면서 후끈 달아오른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에픽하이는 관객석으로 내려와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학생들의 앵콜이 쇄도하자 에픽하이도 못내 아쉬운 듯 다시 무대에 올라 한 곡을 더 열창했다.

■ 응원대제전 시상식, 치기공학과의 우승

열기가 뜨거웠던 에픽하이 공연이 끝나고 응원대제전 시상식이 이어졌다. 시상은 학생지원처 전국현 부처장과 이서현·서수현 교수가 맡았다. 3등은 임상병리학과, 2등은 치위생학과, 대망의 1등은 치기공학과가 차지했다. 치기공학과는 우승과 함께 40만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이번 응원대제전 우승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치기공학과 류한진 학생은 "감독을 맡아 열심히 준비했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1등을 하게 되었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이 호흡을 맞춘 단원들과 함께 구호를 크게 외치며 굳은 결속력과 단결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 폐막식, 축제의 막을 내리다

이틀간의 '응답하라! 신기해 축제'가 환호 속에서 막을 내렸다. 다양한 부스와 다채로운 행사로 눈과 귀가 즐거웠던 이번 축제에도 많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 정동희 학생회장은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며 "이번 축제도 총학생회와 축제준비위원회가 함께 밤새워 준비했는데, 잘 즐기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폐막선언과 함께 추첨이 이뤄졌다. 추첨을 통해 에코페이스 LED마스크, 미니 공기청정기, 스타벅스·올리브영 기프트카드,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저주파 미니 안마기 등 다채로운 상품들이 증정되었다. 추첨에 끝까지 자리한 학생들은 자신의 번호가 호명될 때 환호성을 지르며 무대로 올라갔다.

이번 축제의 숨은 공신은 총학생회와 축제준비위원회였다. 이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쪽잠을 자며 축제를 열심히 준비했다. 그 중 총학생회 강진 행사기획국장은 "경험과 자료가 부족해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았다"고 말했다.

준비한 만큼 축제는 원활히 진행됐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에는 축제 진행 때 자잘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큰 탈 없이 무난하게 진행돼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고 털어놨다. 아쉬움도 남았다. 강진 학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니 안도감은 들지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모두가 즐겼던 축제, 내년에는 더 커진 규모와 재미로 학생들에게 '꿀잼'을 선사해주기를 기대한다.









한여름 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신한대체전'

폭염도 막을 수 없는 열정적인 경기가 펼쳐지다
치기공학과 3년 연속 종합우승 거머쥐어



이틀 간 진행된 '신기해 축제'가 끝나고, 5월 24일 신한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신한대체전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신한대체전 참여를 위해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씨에도 이른 시간부터 운동장에 모여들었다. 예정된 경기는 구기 종목(축구, 농구, 피구, 발야구)의 결승전과 단체 종목(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미션계주)이었다.

정동희 총학생회 회장의 짧고 유쾌한 개회사가 있었던 개막식을 시작으로 각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오전에는 구기 종목의 결승이, 오후에는 단체 종목이 진행되었는데,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씨에 학생들의 열정이 더해지면서 모든 경기가 후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각 경기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평소 무더위 속에서 강의실에 앉아 강의를 듣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는 학과별 응원 열기도 뜨거웠다. 구기 종목의 경우 여러 종목이 동시에 진행되어 응원 인원이 분산되었음에도 득점을 올릴 때마다 함성이 터져 나와 열띤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특히 체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줄다리기 경기는 다른 종목보다 훨씬 치열한 신경전과 응원 열기를 보여줬다. 모든 참가자들이 운동장에 모여 힘차게 줄을 당겼고,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줄을 당기는 선수들 바로 옆에서 격려의 말을 하며 힘을 북돋아주었다. 특히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한 이벤트 경기는 평소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벽을 허물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었다.

오후 5시가 넘어 미션계주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에는 시상식이 열렸다. E-Sports 분야에서는 식품조리학과, 공연예술전공, 간호학과, 섬유소재공학과가 각각 LOL, 오버워치,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분야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구기 종목에서는 글로벌통상경영학과가 축구, 치기공학과가 농구와 피구, 방사선학과가 발야구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망의 종합 우승은 치기공학과에게 돌아갔다. 치기공학과는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당당히 3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 또 한 번 그 실력을 입증했다. 체전 3연패의 소감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치기공학과 대표학생은 장난스러운 말투로 "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운을 떼며 땀에 젖어 지쳐있던 모든 학생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그는 "앞선 말은 농담이었다"며 "저희 학과 모든 학우들이 열정적으로 함께 준비하고 참여해줘 가능했던 일인 것 같다"고 우승의 공로를 모든 학생들에게 돌렸다. 이로써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체전이 훈훈하게 막을 내렸다.

김민주 수습기자











지난 4월 16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제13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시상식(KOREA STAR AWARDS 2019)'이 열렸다.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은 세 가지 부문인 기업부문(신기술, 우수제품, 디자인), 학생부문(완제품, 디자인), 공로부문(우수공로) 중 학생부문에서 부천시장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은 '펫티켓(Petiquette, '펫'과 '에티켓'을 합친 합성어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로 제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패키징(포장) 산업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학생들을 만나 공모전 첫 수상에 대한 소감부터 그들이 가진 올해의 목표까지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부터 인터뷰 전문)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산업디자인학과 14학번 정성호, 17학번 이다은, 17학번 이수빈입니다.

Q. '제13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대회'에서 부천시장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먼저 대회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한국패키지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패키징 산업에 기여한 기업과 학생들에게 포상을 주는 대회예요.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 규모가 크다는 점도 저희가 대회에 참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기술성을 중시한다면, 학생부문에서는 실용성보다 창의성을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Q. 기술성보다 창의성이 중시되는 학생 부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심사에서는 작품에 담긴 의미나 창의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당선된 다른 학교 지원자의 작품을 보면, 구조적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게 보이는데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어요. 똑같은 제품을 어떻게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Q. 수상작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배변 처리 기능을 더한 '애견 간식 패키지 디자인'이에요. 최근 '펫티켓' 문화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산책 시 배변 처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기존 배변 처리 제품의 배설물 수거 시 불쾌하다는 점과 위생적이지 않은 점을 특별히 고려했어요. 그래서 배설물을 만지지 않고 손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쓰레받기와 삽의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주인이든, 그들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배변 처리 제품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표백제가 들어가지 않는 크라프트지를 이용하여 촉각, 시각적으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전달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크라프트지는 단가가 낮아 시장형성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겉에는 강아지 얼룩무늬를 형상화한 귀여운 일러스트와 배변이 묻을 부분엔 채도가 높은 배색을 넣기도 했습니다. 사용자의 구매를 유도하도록 "건강도, 환경도 끝까지 책임질게"라는 위트 있는 문구도 넣었어요.

Q. 이 작품을 통해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A. 배변 처리 기능을 더한 애견 간식 패키지 디자인은 처음부터 "펫티켓 문화를 한 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이 패키지를 단순히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불쾌한 느낌을 없애주고, 더 나아가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까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제품 자체가 화려하고 고도의 기술이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제품이 줄 수 있는 가치지향성에 더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기를 모두 고려해서 "책임질게"라는 브랜드가 탄생했답니다.

Q. 대회 준비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 그래픽 작업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의 제작 기간 동안 제일 오래 걸렸던 작업이 패키지 구조와 그래픽 작업이었거든요. 사실 패키징 분야가 워낙 넓어서 어떤 부분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친환경 소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한 디테일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에게 컨펌을 받을 때도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셔서 난감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가 의도한 컨셉에 필요한 부분만 채택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디어 도출 과정은 짧았던 것 같습니다.

Q.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느낀 소감 부탁드려요.

A. 공모전이 거창한 것인 줄만 알았는데, 학교에서 준비하는 과제에서 좀 더 발전하면 공모전도 쉽게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방학 중 관심 있는 공모전에 참가해보는 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팀으로 준비하는 공모전에 참가해서 팀원들이랑 좀 더 돈독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사실 혼자서 공모전을 준비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제안해준 친구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Q.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종강 후 방학 때에도 공모전에 참여해 끊임없는 도전을 해서 자신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번에 참여한 공모전은 국내 규모인데, 더 열심히 준비해서 국제 규모 공모전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목표라면, 이번 공모전 수상이 저희 과에서 첫 번째였는데, 올해 말에 마지막으로 수상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산업디자인과 후배들에게 공모전 팁을 주자면?

A. 먼저 주최 측에서 제시하는 주제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주제 안에서도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에 주목하면 되고요. 공모전 진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공모전에서 지향하는 바가 드러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전 회 출품작, 수상작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이슈되는 사회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출품작과 관련지어 아이디어를 발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규모가 큰 공모전에 참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사소한 공모전이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시작할 때 떨어질 걱정을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펫티켓 문화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의 '책임질게'는 아직 펫티켓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발전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용자가 디자인에 담긴 의미를 알게 해주는 가치지향성을 중시하는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 패키징 디자인 분야의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다.

한규현 기자



치아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신한대 이경희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구강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공로
치매예방 위한 구강보건중재 프로그램 개발 중…
생애 주기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 '요람에서 무덤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하루 세 번, 특히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다. 그만큼 예전부터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던 것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치아 건강을 비롯한 구강 보건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는 등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최근 국민의 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가 있다. 바로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에 재직 중인 이경희 교수이다. 이경희 교수는 영유아기부터 구강보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구강 건강 교육 애플리케이션인 [맘스투스] 개발에 참여하는 한편, 치매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보건 문제가 새삼 중요하게 떠오르는 여름, 본지는 이경희 교수를 직접 만나보고 수상 소감 및 구강보건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경희 교수는 수상을 기대하지 않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외부 활동을 할 때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상자로 추천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설레었고, 실제 수상 받았을 때는 그 간의 노고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는 한편 뿌듯하기도 했다" 는 것이 이경희 교수의 말이다.

이경희 교수가 개발에 참여한 [맘스투스]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엄마'를 의미하는 'Mom', 치아를 의미하는 'Tooth', 여기에 '블루투스(Bluetooth,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표준이 되는 규약)'의 의미까지 포함된 이름이다. 즉, Tooth는 치아를 뜻하는 동시에 '블루투스'의 의미를 포함함으로서 온라인 컨텐츠가 포함됨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름을 통해 직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선 셈이다.

[맘스투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이경희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는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했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구강보건협회 주관 하에 제작된 것이며, 협회에서는 생애 주기의 첫 시기인 영유아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제작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맘스투스] 애플리케이션은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기획되었다. 임산부용 컨텐츠는 예비 부모들에게 임신기의 구강건강 관리방법과 자녀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지식을 제공하고, 영유아용 컨텐츠는 동화와 동영상 등으로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아이들이 쉽게 구강건강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AR(증강현실) 게임을 개발하는 등 보다 참신하고 새로워진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또한 요즘 아이들이 캐릭터에 관심이 많은 것을 반영하기 위해 증강현실 게임에 들어가는 캐릭터를 3D 동영상 디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개발하였고, 캐릭터 이름 역시 공모를 받아 새이(치아천사)와 까미(치아세균)라는 이름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점이 특이했다.

[맘스투스]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안드로이드 OS용으로만 개발되어 있으며, 향후 IOS 등 다른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이경희 교수의 다른 연구도 흥미롭다. 바로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중재 프로그램이다. 치매와 구강 보건은 쉽게 연관짓기 힘든 소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경희 교수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치아가 많이 상실될수록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한다. "아래턱뼈는 두 개골에 분리되어 있고 관절로 이어져 있는데,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이 부분이 자극되면 뇌에 혈류를 보내게 되어 뇌가 자극이 된다. 따라서 음식을 잘 씹는 것이 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아가 상실되면 음식을 잘 씹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뇌로 가는 자극이 작아져 인지기능의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것이 이경희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이경희 교수는 "노인들의 경우 폐렴에 취약한 경향이 있는데, 유아기 폐렴은 병원균에 의한 감염성이 많은 반면 노인기의 폐렴은 수면 중 타액이 폐로 흘러들어가 폐렴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후두 근육을 비롯한 구강 근육의 힘이 필수적인데, 입안 마사지나 체조를 통해 해당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꾀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즉, 단순히 치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인 보건 증진에도 영향을 주는 연구인 것이다.

치아 건강이 중요한 만큼 치아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독자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이경희 교수는 올바른 용어 사용을 먼저 주문했다. "보통 양치와 칫솔질을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양치'란 물로 입을 헹구는 행위를 뜻한다.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를 닦는 행위는 '칫솔질'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해서는 '칫솔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희 교수가 추천한 칫솔질은 '회전법(Rolling Method)'이다. 이는 치아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닦는 것에 더해 손목을 돌리는 행위가 추가되는 방법이다. 즉, 단순히 칫솔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목 운동으로 칫솔모를 치아 표면에 더욱 밀착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청결한 칫솔질이 가능하다고 한다.

치아 겉면에 생기는 충치는 거울을 보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치아 사이에 생기는 충치는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겉으로 봤을 때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경희 교수는 치실의 사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교수의 말에 따르면 치실질은 칫솔이 닿지 못하는 곳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평소 관리하기 어려운 치아사이를 집중적으로 닦을 수 있게 되어 칫솔질만 할 때와 비교하였을 때 충치 예방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 다만 치실질을 하지 않던 사람의 경우 그동안 관리되지 않은 치아 사이 잇몸 부분에 대부분 염증이 있기 때문에 치실질을 처음 시작할 때는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경희 교수의 말이다. 이경희 교수는 "이는 당연하고 또 지속적인 관리 하에 금방 사라지는 현상임으로 크게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경희 교수는 "우리나라 치과 의료의 수준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올 정도로 높아졌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구강보건 측면에서 아직도 인식이 낮은 부분이 치실의 사용이라고 생각된다"며 "외국의 경우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의 치아 사이를 치실로 닦아주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인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치실질을 해주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알려지고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구강 건강은 생명에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소 소홀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 지원측면에서 구강건강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의 의하면 구강건강은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 12년 만에 구강건강을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부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구강정책과는 구강보건, 치과의료 제도, 치의학산업 등의 치과 관련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로서, 산하에 구강정책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치과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경희 교수는 "해당 과에 구강보건 전문인력들이 배치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 기존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이경희 교수는 자기 자랑이나 홍보 대신 연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이 교수는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대상자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연계된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저희가 진행하는 연구들은 대상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고 연구에 참여해 주시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말을 맺었다.

이경희 교수의 향후 연구들도 모두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며, 독자 제현 모두가 치아건강 관리에 유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현규 기자.



나날이 발전하는 태권도교육융합전공

태권도교육융합전공 이수정·변대한 학생 인터뷰
변대한 학생 "학교와 학과의 명성을 올리는 노력 보여줄 것"
8월 '2019 신한대학교 총장배 세계 평화 태권도 페스티벌'에 높은 관심 쏠려…



지난 5월, 전라북도 부안 매창공원에서 '2019 제7회 부안 마실 축제 춤 퍼레이드 경연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부안 마실 축제 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춤 경연 대회로, 7년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축제이다. 이번 경연 대회는 전통예술부터 타악, 치어리딩, 비보이, 힙합, 현대무용, 태권도 시범단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팀이 출전했다. 이 대회에 신한대학교 신설 학과인 태권도교육융합전공은 태권도 시범단인 태랑학회와 합을 맞춰 태권도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세계대회에서 3연속 우승에 빛나는 필리핀의 돈주앙 등 소문난 실력을 갖춘 해외 팀들이 여럿 참가한 가운데, 신한대학교 태권도교육융합전공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상을 수상하며 1천200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문 댄스 안무와 태권도 동작을 융합하여 절도 있고 화려한 동작으로 무대를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무대 장치들을 활용해 대규모 공연예술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이 일반 대중의 눈을 사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태권도교육융합전공 1기 이수정 학생과 주장 변대한 학생을 인터뷰했다.

주장을 맡고 있는 변대한 학생은 "부안을 상징하는 주제를 정하고 경기 규칙에 맞춰 그에 맞는 안무를 만들었다"며 공연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지도자님과 교수님께서 부안과 관련된 전설을 찾아주시고 그에 맞는 음악도 정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찾아주신 주제는 '계양 할미전'이라는 지역 전통 설화예요. 계양 할미전은 계양 할미와 8명의 딸들이 도깨비를 물리쳐가며 부안을 다스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희 태권도교육융합전공 학생들과 태랑학회는 이 큰 틀 안에서 지도자님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직접 세부적인 안무를 만들었어요."

신한대학교 태권도교육융합전공의 27명 학생들 중 총 26명이 춤 퍼레이드 경연 대회에 참가했다. 참가 기준에 대한 질문에 이수정 학생이 자랑스레 대답했다. "태권도교육융합전공의 27명 학생들 중 부상자인 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참가했어요. 처음부터 전원 출전이 목표는 아니었어요. 교수님께서 좋은 기회를 알려주시고 희망자만 참가하는 방식이었는데, 26명의 학생들이 모두 대회에 참가하기를 희망했어요. 같은 전공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태랑학회 사람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 대회에서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했던 친구까지 27명 전원이 출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말하는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좋았던 점은 연습 과정에 있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안무를 만들고 연습했어요. 신나는 분위기의 축제였기 때문에 태권도 동작과 댄스를 섞어 퍼포먼스를 살리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태권도만이 아닌 춤 동작까지도 익혀야 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태권도와 춤을 섞어 안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기도 했어요. 저희가 만든 안무로 춤 퍼레이드 경연 대회에 나가고 상까지 받으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수정 학생)

변대한 학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상이라는 결과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생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협동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상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매번 적절한 피드백과 지도를 해주신 최상진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 교수님, 감독님, 코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를 지도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권도에 큰 관심이 없던 일반 대중들도 저희의 퍼포먼스를 보며 공감하고 환호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준비한 공연에 박수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정 학생도 "이번 춤 퍼레이드 경연 대회가 신한대학교 입학 이래로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신설된 학과이고, 모두가 낯선 상황임에도 부상자 한 명을 제외한 26명의 신입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전원 출전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동기들과 친목을 쌓았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태권도교육융합전공과 태랑학회라는 다른 두 소속의 사람들이 만나 이렇게 합이 잘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태랑학회 친구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올해 신설된 학과임에도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태권도교육융합전공. 이 전공의 소속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향후 계획도 기대된다. 변대한, 이수정 학생은 신생학과의 좋은 점을 "걱정이 아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생 학과이기 때문에 더 큰 에너지와 더 나은 발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연 대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태권도만이 아닌 공연예술적 분야도 융합해서 일반 대중도 태권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많은 태권도 관계자분들과 교수님들께서도 저희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크신 것 같아요. 학교 그리고 학과의 명성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변대한 학생)

태권도교육융합전공은 이번 대회에서 대중들이 환호하고 동감할 만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태권도 공연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만큼 태권도 관계자들은 이들이 그려낼 다른 주제와 퍼포먼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변대한, 이수정 학생은 8월에 열릴 '2019 신한대학교 총장배 세계 평화 태권도 페스티벌'에 대해 소개하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신한대학교 총장배 세계 평화 태권도 페스티벌은 40개국, 10,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출전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회이다. 품새, 겨루기, 무도 호신술부터 가족 태권도, K-POP 태권댄스, 태권줄넘기, 태권도 도복 모델 콘테스트, 맞서기 등 15가지의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신한대학교 태권도교육융합전공 학생들이 어떤 종목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조희지 기자

[기자의 먹물]

정치,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11:58 강연] 가슴 뛰는 청년이여, 그대에게 묻는다!
니치버스터 안철민 동아리장 "우리가 잊고 사는 꿈의 가치 잊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정치 현 주소를 통해 '청년정치'의 필요성 강조
서강대 오세제 박사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름 아닌 청년들의 도전"

6월 5일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에벤에셀관 원형극장에서 '니치버스터 11:58 강연'이 열렸다. '청년은 지금 위기인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청년 거버넌스 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서강대 오세제 박사가 강연을 통해 청년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니치버스터(Niche buster)'라는 동아리는 틈새 속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인생의 가치를 찾아내 실현하자,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니치버스터 안철민 동아리장은 "틈새에서 출발해 그 누구보다 강력한 효과를 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동아리를 소개했다. 잊고 사는 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연과 프로그램들을 준비한다는 니치버스터는 기업가로서 성공한 인물이나,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뜻을 펼치고 있는 사람을 초빙해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 서강대 오세제 박사 강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의 손에 달려있다

오세제 박사는 '청년정치'라는 다소 난해한 주제를 택했다. 청년의 수만큼 대표성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집행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주제는 출발한다.

2012년 19대 총선 때 6명의 청년 비례대표 의원이 탄생했다. 19대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광진 의원은 5년간 청년 법안 12개를 발의했다. 36세에 당선된 이재영 의원은 청년 창업자 우대 법안을 발의해 2015년 2월 본의회를 통과시켰었다. 청년 의원만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속한 세대의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20대 총선 때가 되니 공천되지 않았다.

한국일보(6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기성정치와 청년정치가 내세우는 '청년 배려 불가론'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젊은 친구들 실력이 없잖아." "앞으로 기회가 많잖아." "가산점 주잖아." "비례대표 공천 주잖아." 청년들은 이에 반박한다. "실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장년 후보자 실력은 어떻게 검증됐나." "스스로 30~40대에 등원한 기억은 어디로 갔나." "지역에서 이미 후원회, 조직을 돌리는 후보를 가산점만으로 어떻게 능가하는가." "청년은 비례 한두 명으로 구색만 맞춰도 된다는 프레임은 누가 만들었는가."

양각의 대립구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2012년 국제의원연맹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30대 국회의원은 제20대 국회 기준 단 1%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 평균은 13.52%이다. 40대(16.67%)도 세계 평균 25.22%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 반면 50·60대는 세계 평균을 크게 앞선다. 50대는 20·30대를 합친 것에 50배 이상으로 차이난다.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5.5세이다. 제20대 국회가 역대 최고령 국회라고 불리는 이유다. 지금의 국회 현상에 대해 오세제 박사는 "386세대라고 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50대가 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50대에는 절반 이상이 87세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세대는 청년시절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을 경험한 사회운동 세대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청년들이 사회운동 경험이 없어 이들과 비교된다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이 촛불로 밝혀졌을 때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다. 청년들은 퇴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거나 시위대 가장 선두에 서서 평화시위를 외치며 경찰과 충돌하는 시민을 막아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변화들을 가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2017년에 '우리미래'라는 청년정당이 창당했다. 그 전에도 청년 정당이 출범한 적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적은 없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진 못했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청년의 미래를 앞장서서 개척하겠다는 용기와 의지는 박수를 보내줄만 하다.

오세제 박사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정치적 경험을 갖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정당은 체제가 굳어져 성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오 박사는 "청년들의 정치적 진출에서 국회가 일차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략적으로 지방선거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50대 지방의원은 2,078명인데 반해 작년은 고작 127명뿐이다. 그래서 오 박사는 "청년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주민들을 만나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에는 정당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환멸과 반감이 팽배해 있고, 고질적인 정치허무주의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중



앙 정치에는 변호사, 검사, 교수, 언론인 등과 같은 소위 엘리트들이 자리잡아 있고, 지방정치에는 건설업자, 부동산 업자 등이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을 둘러싼 정치 환경은 척박하고, 정당 시스템과 선거제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기성세대 중심의 정치 충원과 청년세대 문제 심화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해법은 청년정치인을 별도의 약자, 소수자로 범주화하지 않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각종 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역 기득권 구조를 조명하고, 왜곡된 국회의 대표성·비례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들을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실력 있는 젊은 정치가를 미리 육성해야 한다.

정치혐오주의 때문일까, 성인 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한국일보가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는 '세대교체'(54.1%)였다. 하지만 이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에서 '세대교체'를 1순위 과제로 택했으며, 오히려 연령이 높은 40~60대에서 더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제 박사에게 정치란 '나와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그는 "정치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고, 스스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며 "소극적 자유가 아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허무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용감하게 나서는 청년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 박사는 "청년은 젊고, 깨끗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며 "명분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다면 공공연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 동지를 규합하고 청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의 마태복음 9장 17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라고 나와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낡은 정치 속에서의 민주주의는 언젠가 지향해야 할 곳을 잃어 허우적댈 것이다. 민주주의라 함은 각기 다른 다양한 계층 모두를 아우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청년세대가 됐든 기성세대가 됐든 말이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라는 말처럼 청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청년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대의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치, 이제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을 차례이다.

신대현 기자



제5회 중앙도서관 학술전자정보박람회 개최… 상품이 '와르르'

스탬프 미션, 타임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열려
박람회 참여 학생 "과제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꿀팁'도 얻어…"

지난 5월 2일 목요일, 신한대학교 망월사 제1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2019학년도 제5회 중앙도서관 학술전자박람회'가 개최되었다. 2015년도부터 시작해 올해로 다섯 번째 행사가 열리는 학술전자박람회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인 전자저널, E-Book, 이러닝(E-Learning) 등 학술전자정보원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용방법을 교육받거나 시연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다.

학술전자박람회는 신한대학교 제1캠퍼스에서만 진행될 뿐 아니라 5월 9일 목요일에 신한대학교 제2캠퍼스에서 한 차례 더 진행되어 모든 학생이 각 캠퍼스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박람회는 스탬프 미션, 타임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스탬프 미션은 각 제공사의 부스에서 전자정보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미션지에 도장을 받아오는 행사로, 박람회의 메인 이벤트였다. 또한, 스탬프 미션을 참여할 경우 제공사에서 준비한 상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 중간에 진행되는 타임이벤트에서는 정해진 시간대에 박람회에 참여한 인증 사진을 찍어 본인의 SNS에 [# 신한대 중앙도서관 # 학술전자정보박람회] 를 태그 후 게시하면 선착순으로 기프트콘을 추가로 제공하는 식으로 박람회 참여를 독려했다.

푸짐한 상품들로 학생들의 이목을 끈 학술전자정보박람회 상품 추첨은 당일 오후 4시에 진행되었다. 아이패드, 에어팟, 미니 스마트빔, 블루투스 스피커 등 고가의 푸짐한 경품들이 상품권 추첨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박람회에 참여한 미디어언론학과 2학년 이하승 학생은 "우연히 도서관에 들렀는데 박람회를 해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참여하게 되었다"며 "식권이랑 간식 등 상품도 받고 과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꿀팁'도 얻어 기분이 좋다"고 박람회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전자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는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 또한, 중앙도서관에서는 정보 검색 교육과 맞춤형 학술 연구 지원 교육 등 레포트와 논문 작성에 유용한 교육을 사서들이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신한대학교 재학생들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학술전자정보박람회는 내년 2020년에도 개최될 예정이므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내년을 기약해도 좋을 것이다.

정윤지 기자






















애플리케이션 '자리있니' 1인 개발자 이승훈 학생 인터뷰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 좌석 애플리케이션 '자리있니' 무료배포
개인적 불편함으로 개발한 것이 학우들의 편리성 높여
이승훈(컴퓨터공학전공 4학년) 학생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는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싶다"



캠퍼스 생활이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종종 학교 시스템에 크고 작은 불편함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개인이 학교의 시스템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단순히 학교 건의게시판에 불만사항을 남기는 것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 학교 시스템에 불편함을 느껴 개인적으로 모든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신한대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 바로 신한대학교 IT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4학년 이승훈 학생이다.

천부적인 재능으로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만의 애플리케이션 '자리있니'를 개발한 이승훈 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에 재학 중인 컴퓨터공학전공 4학년 이승훈입니다.

Q. 이번에 도서관 자리 애플리케이션 '자리있니'를 개발하시고 신한대 학우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셨는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A. '자리있니'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같은 학우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중앙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2캠퍼스에 재학 중이지만 시험공부를 위해 1캠퍼스 중앙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가곤 합니다. 시험기간에 직접 열람실에서 공부하며 자리가 비어 있어 예약하고 갔더니 다른 학우가 앉아 있다거나, 학교에 나가기 전 열람실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제대로 예약되어 있는지, 열람실에 가기 전 자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가벼운 취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Q. 전문가가 아닌 학생의 신분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자리있니'를 개발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셨고,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은 어떻게 익히셨는지 궁금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크게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아이폰(IOS)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게 개발되는데요. 이번 '자리있니'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학과에 '모바일 프로그래밍'이라는 강의가 있어 이 강의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접하게 되었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랑받는다는 점에 끌려 따로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Q. 그럼 도서관 '자리있니'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개발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A. '자리있니'의 프로토타입은 2018년 가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바로 개발을 진행하여 약 한 달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했습니다.

혼자 진행한 프로젝트이지만 아무래도 학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직원 분들에게 상담을 받고, 학과 교수님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자문을 구했습니다. 디자인에도 상당한 시간을 쏟았습니다.

Q.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A. 기존에 웹상이지만 열람실 좌석 조회 시스템이 있어 기능을 구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 시스템이 관리가 안 된지 너무 오래되어 실제 좌석배치도와 다르다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시스템대로 개발해서 완성해놓은 뒤 실제로 맞는지 직접 확인하러 열람실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Q. 이승훈 학생이 개발하신 앱이 신한대 페이스북 페이지(신한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 많은 신한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A.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아이폰을 사용는 학우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죄송했고, 아이폰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도 빨리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혹시 또 개발 구상 중이거나 제작하고 싶으신 애플리케이션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A. 지금은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졸업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신한대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2캠퍼스 학우 분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보고 싶네요.

Q. 마지막으로 신한톡톡을 통해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A. 부족한 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신한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같은 학우 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편리성을 드렸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고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신한톡톡에서 저보다 더 훌륭한 학우 분들이 소개될 것이라 생각하고, 같이 신한대학교를 더 알차게 꾸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학생이 개발한 '자리있니' 애플리케이션은 현재까지 많은 학생이 다운받아 학생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혼자 개발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앱을 배포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준 이승훈 학생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빛날 그의 앞날을 응원한다.

정윤지 기자







[기자가 간다] 대학생 자율순찰대 '신한폴' 동행취재

학생들의 안전, 우리 '신한폴'이 책임진다

2017년 의정부 지휘관할 강력범죄 발생건수 1천 800여 건… 96.8%의 검거율 보여
신승희·최종성 학생 "학교 뒤편 원룸촌 위험"
정해양 기동순찰대장 "신한대 치안점수 10점 만점 중 9.5점"

갈수록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다. 살인이나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요즘에는 조현병 환자 사고가 큰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공론화되기도 했다. 연일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에 대비해 호신용품까지 가방에 넣고 다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17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에 따르면 전국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에 166만여 건으로, 2016년 184만여 건에 비해 18만여 건 정도 줄었지만 그것이 국민의 치안 안심정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17년 흉악 강력범죄(살인·강간·방화·성추행) 건수는 전 해에 비해 2천여 건 늘은 2만 7천여 건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지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의정부지방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2017년 흉악 강력범죄 직수·인지사건 17건을 모두 검거했다. 하지만 같은 항목에서 지휘관할 건수는 1천 800여 건으로 그중 96.8%의 검거율을 보였다. 2016년 전국 234개 지역 중 의정부시가 경기 광주시와 서울 영등포구와 똑같은 13건의 살인사건이 기록돼 살인사건 발생 지역 상위 10위 안에 들기도 했다.

이처럼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불의의 경우가 생겼을 때 자신을 지키는 것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위험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며 사전에 범죄를 방지하고자 순찰 활동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면 어떨까? 그런 활동이 신한대학교에 있다. 바로 대학생 자율순찰대 '신한폴'이다.



'신한폴'은 의정부경찰서와 신한대학교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 19일 범죄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발족한 이래로 3년 째 이어오고 있는 활동이다. 신한폴은 범죄예방진단팀(CPO)의 범죄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주변 취약지를 진단해 순찰노선을 선정하고, 대학생들이 직접 경찰들과 함께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교내·외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경찰 홍보활동도 겸하고 있다.

특집 [기자가 간다] 팀은 5월 21일 오후 7시부터 1시간여 동안 신한폴과 함께 교내·외 순찰을 돌며 직접 치안유지 정도를 파악하고, 동행취재하며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이야기를 담아냈다. 끝으로 신한폴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경찰서 정해양 기동순찰대장을 인터뷰해 현장전문가가 본 신한대의 치안 현주소를 알아봤다.













■ 신승희·최종성 학생 "신한폴은 학점도 챙기고 보람도 느끼는 일석이조 효과"

"저희의 활동으로 주민 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순찰에 임하고 있어요."

순찰 중 순찰 활동을 임하는 자세에 대해 묻자 신승희(공연예술학과 보컬전공/14학번) 학생은 이렇게 답했다. 평소 방범이나 경찰관과 관련된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그녀는 "신한폴로 저 같은 여성도 안심하고 다니게 하고, 봉사활동도 겸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았다"고 신청사유를 밝혔다.



신승희 학생이 경찰을 신뢰하고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취객이 가게에서 난동을 부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녀는 "너무 무서워 순간적으로 경직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을 때 경찰들이 와 취객을 제압하는 걸 보고 안심했다"며 "이후 전화로도 괜찮았냐고 물어봐주시고, 이제는 경찰이나 순찰차만 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최종성(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15학번) 학생도 경찰 활동을 경험해보고 싶어 지원했다. 그는 '사랑나눔'이라는 교양수업의 일환이라고도 했다. 이 교양수업은 봉사활동 시간 40점을 채우고 활동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2학점으로 인정된다.

두 학생 모두 치안이 취약한 곳으로 학교 뒤편 원룸촌을 꼽았다. 이곳은 원룸이나 빌라가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낡은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가로등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두워 범죄가 일어나기 좋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도 두 학생은 신한대 치안 정도를 좋게 평가했다. 신승희 학생은 "늦은 시간에 학교 주변을 배회해도 딱히 무서움이나 위험을 느끼지 못했다"며 10점 만점 중 8점을 매겼다. 최종성 학생은 "밤 11시를 기점으로 교내 불이 다 꺼져서 그게 좀 위험한 것 같다"며 7.5점을 매겼다.

신한폴 활동이 끝나면 연말에 범죄예방에 공로가 큰 학생에게 감사증과 포상증이 수여된다.

■ 의정부경찰서 정해양 기동순찰대장 "시민이 작은 일에 감동할 때 보람 느껴"

"우리 경찰의 모토는 '제복 입은 시민'입니다. 뭔가 큰 사건을 해결했을 때보다 작은 사건이나 일을 도와주고 시민 분들이 감사해 할 때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28년 베테랑 경찰인 정해양 기동순찰대장은 "그동안 범인 검거도 많이 하고, 총도 쏴보고 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감동해 할 때 같이 감동한다"고 말했다. 기동순찰대는 기존 지구대, 파출소의 치안공백을 채우기 위해 2014년 신설된 경찰 조직으로, 집단범죄나 폭력 등을 사전에 제압하고 출동해 용의자 검거, 피해자 관리, 도주로 차단, 증거 확보 등을 신속하게 수행한다.

정해양 대장은 신한폴의 장점을 '상부상조'라고 했다. 그는 "교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학생 스스로 방지함으로써 시민의식을 높이고, 그와 함께 경찰 인식개선과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며 "경찰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도 해주고 시민으로서 불편사항도 들어준다"고 말했다.

정해양 대장 역시 교내·외 치안이 좋지 못한 곳으로 원룸촌을 꼽았다. 정 대장은 "혼자 사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순찰이 더 필요한 곳"이라며 "범죄는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활발한 순찰과 가로등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폴과 같이 동행취재하며 순찰을 돌아본 결과 주변 치안 수준은 높은 것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일부 가로등이 적거나 인적이 드문 곳이 있어 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해보였다. 그래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순찰 모습을 보고 믿음이 갔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한폴의 눈부신 활약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신대현·조유빈 기자



뜨거운 열정을 'Accent(악센)'하다

공연예술학과 'Accent(악센)' 정기공연
신한대, 경기 북부 문화·예술 분야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다
자발적인 열정으로 그려낸 자체공연으로 큰 호응 얻어
공연예술학과 홍서린 학생 "공연을 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것 같다"

종합대학 출범 이후, 신한대학교가 특화 전략으로 내세우는 분야 중 하나는 문화·예술 분야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신한대학교는 매년 '신한류' 페스티벌과 K-POP 공연대회 등을 개최하며 경기 북부의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학교 차원에서 문화·예술 분야 특화 전략을 취하기 이전부터 오직 학생들끼리 실력 점검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스스로 단합하여 기획하고 진행한 공연 무대도 존재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의 공연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매년 1학기에 진행되는 공연예술학과 K-POP전공 학생들의 'Accent(악센)' 정기 공연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Accent(악센)'은 신흥대학 실용음악과 시절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자발적 공연을 계승한 무대다. 종합대학 출범 이후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이 당시 신흥대학 실용음악과 선배들과 서로 소통하여 위 같이 좋은 취지의 공연을 이어나간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공연예술학과는 매 학기마다 1회씩 매년 2회의 자체적인 정기 공연을 선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매년 1학기에 진행되는 악센이다. 올해의 1학기 악센 정기공연은 지난 5월 15일 에벤에셀관 지하 원형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은 자발적인 공연의 취지에 맞게 지난 시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보여주었다.



이번 6회 악센 정기공연에서 학생들이 선보인 공연 무대는 ▲Isn't She Lovely ▲Locking Dance ▲Alive ▲에너제틱 ▲1학년 Dance ▲너를 그리다 ▲달라 달라 ▲촛불 하나 ▲잠 못 드는 밤에 ▲Your Dogs Loves You ▲House Dance ▲Girlish Choreography ▲Love The Way You Lie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Counting Stars ▲D.M.S Dance ▲콜라보레이션 Daft Punk 총 17개의 무대이다. 이날 무대는 공연 순서까지도 신경 써서 구성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공연 시간동안 관객석의 분위기를 장악하기 위해 신나는 곡과 잔잔한 곡, 댄스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관객들의 텐션과 집중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노련미를 보여주었다.

또한 각종 노래와 댄스 등의 무대 구성 외에도 경품을 걸고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간 이벤트와 경품 추첨을 진행해 관객들에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다. 또한, 신한대학교 원형극장 무대의 형태적인 특성을 살려 관객석과 무대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그로 인해 어느새 관객도 그 무대의 일부가 되는 연출을 시도하여 색다름을 더했다.

동시에 이번 공연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되었다.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은 비교적 열악한 환경인 지하 원형극장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그 모습은 100여명의 현장 관객과 SNS를 통해 다수에게 전해졌다. 지하 원형극장 특유의 콜로세움 형태의 무대와 관객석 구조상 화려한 조명과 과시적인 연출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그 점들을 노련미로 극복해, 무대의 다른 장점을 살려 보여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즐길 요소를 제공했다. 한 마디로 정말 연예인 못지않은 노련미와 실력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문화공간을 만들어냈다.

2014년 4년제 종합대학으로 출범한 이후, 경기 북부의 문화·예술 허브를 노리는 신한대학교로서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의 이 같은 행보는 자랑스러워할만한 성과이다. 2014년부터 악센 공연은 해를 거듭할수록 무대의 질이 높아졌으며, 홍보수단도 자체적으로 연구함에 따라 관객 수 역시 확연히 늘어나왔다. 학교의 지원과 요청이 없는 공연임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열정을 불태우며 스스로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줄 만하다.

성공적인 무대였던 악센 공연의 준비과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당시 무대를 책임졌던 신지섭 공연예술학과 부학회장은 "다들 열정적으로 무대를 준비해줘서 특별히 힘이 든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무대에 오르고자 자발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더 많아 본 무대에 올라갈 팀을 선별하는 것이 더 어려웠고, 참가자들이 열의를 불태운 만큼 준비 과정에서 큰 난관은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같은 무대에 섰던 공연예술학과 신입생(19학번)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댄스 전공의 홍서린 학생은 "처음 서는 무대였음에도 선배들이 다 잘 챙겨주고, 오히려 다른 무대 준비보다 어렵지 않았다"며 지난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연습실에서 선배들과 유동적인 시간 조정을 통해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했고, 바쁘긴 했지만 비교적 수월했다고 한다. 첫 악센 공연에 대한 소감을 묻자 그는 "다들 음악과 춤 등 공연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학창시절 간간히 준비했던 무대들보다 훨씬 준비가 수월했다"며 "이는 공연예술학과 학생으로 진학한 이후에서야 느낀 감성이라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신지섭 부회장은 "2학기에 진행될 졸업공연과 정기공연 퍼포먼스 역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공연 목표에 대한 질문에 그는 "최근 공연예술학과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했고, 그로 의해 현재 학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모든 학생들에게 악의와 이해타산적인 계산은 없었고, 오직 열정으로 반응했다가 발생한 일이기에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지 않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의 공연들도 오늘처럼 열정과 자발적으로 응하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더 좋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겸손함과 정직함을 지닌 성숙한 '공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연예술학과는 학생들의 방과 후 개인 일정과 활동이 많은 학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시간을 쪼개 악센 공연에 많은 노력을 투자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물로 성공적인 무대를 만들어낸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에게는 꿈을 향한 열정과 진심이 보였다. 노력과 열정으로 무장한 이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신한대학교 문화·예술 분야의 위상은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이다.

김민성 기자













[대담한 기자들] “교양이란 무엇인가”

특집 : 기자들의 대담

교양교육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교양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 혹은 일반교육을 의미한다. 모든 대학교에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에 관계되고 인격을 성장시킬 수 있는 수업인 교양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진정한 교양인이 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인 ‘교양수업’. 그중에 학생들이 좋아하고 수강하기 위해 애쓰는 ‘꿀 교양’이라 불리는 수업이 있는 반면, 피하고 싶은 수업도 존재한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신한대 신문사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한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들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눠봤다.

조유빈 수습기자: 모든 전공들이 그렇겠지만, 전공은 심도 있고 용어도 어려운데 반면, 교양은 머리를 환기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교양수업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교수님들이 엄청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문학에 관련된 교양수업을 듣는데, 이 교수님은 엄청 열정적이세요. 학생들 이름도 다 외우기 위해 노력하시고, 프린트 내용도 정갈하게 잘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수업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주세요. 학생들이 모르는 거 없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최수민 편집장: 나도 그 수업 엄청 잘 들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해. 그런데 모든 교수님들이 대학 수업에는 정답이 없고 “네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단어가 정답이 나오도록 해석을 하시잖아.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 왜냐하면 그 수업은 팀별로 토론도 하는데, 교수님이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정답이 될 것 같은 것을 던져주셔서 다른 시각을 내놓는 것은 조금 힘든 것 같거든.

조유빈 수습기자: 아, 맞아요! 토론을 진행하면서 주제에 대한 답이 정해져있는 느낌? 질문 자체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주제에 찬성 아니면 반대로 방향이 잡혀가지 완전히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틈이 막혀버리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정윤지 기자: ‘s’교양과목의 ‘o’교수님 이 강의는 대형 강의였는데, 소형 강의로 바뀌었어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 교양에서 다루는 주제가 공상과학이라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걸 예로 들면서 공부하니까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물도 같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장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해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까지 알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박현규 기자: ‘o’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sf문학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인문학적인 내용도 함께 설명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죠.

정윤지 기자: 그리고 ‘o’ 교수님이 따른 장르에도 지식이 많으셔서 ‘S’문학 분야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나 이런 다른 분야도 추가로 설명해주시니까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

조희지 기자: 저는 우리 학교 교양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단 들을 수업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양으로 채워야 하는 학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교양수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데, 심리학에 관련된 수업이 학교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별로였어요. 심리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심리학이라는 건지, 그걸 이 수업에서 다루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박현규 기자: 아마 그 강의는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 강요되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최수민 편집장: 현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렇게 강요되어 와서 이런 인식이 뿌리박혀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뉘앙스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교수님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G 수업’ ‘H 수업’ 이 두 교양에서도 우리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토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별로예요. 교수님은 정말 잘 설명해주시는데, 학생들은 생각 안 하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점이 아쉬워요.

신대현 기자: 교수님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시는데, 학생들이 아무런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으면 교수님도 민망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도 민망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해. 내가 들은 교양은 조별수업인데, 교수님이 설명을 하다가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해. 한 사람이 먼저 운을 안 떼면 그냥 아무도 말을 안 꺼내려고 해. 그게 문제인 것 같아. 하지만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최수민 편집장: 난 반대로 생각해. 우리가 갑자기 계속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아오던 환경에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오면 바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여기는 고등학교와 달라, 너만의 생각을 이야기해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해.

신대현 기자: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야. 대학 오기 전까지 교과서 내용대로만 배워오고, 선생님의 말씀이 무조건 정답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론을 못 꺼냈지. 이게 그대로 대학까지 이어온 것이고.

최수민 편집장: 그래서 나는 이론과 토론 사이에 걸음마 단계처럼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

조희지 기자: 제가 추천하는 교양수업에 그런 비슷한 수업이 있어요. 보통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키면 교수님은 앞에서 지켜보는데, 이 수업은 교수님이 조를 다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조원들이 말을 못 하고 있으면 교수님이 운을 떼 주시면서 키워드를 던져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건 아니지 않니?'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바로 제시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셔요. 그리고 토론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토론의 장만 열어주시고 학생들 스스로가 진행하게 하는 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신대현 기자: 내가 OT를 듣고 바로 수강 취소한 강의가 있는데, OT를 들어보니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책 페이지를 학생들에게 분담해서 발표하는 식인거야. 시험도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에서 다 나온다고 하고. 딱 듣기로는 교수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더라고.

최수민 편집장: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다가 교직에 오시게 된 교수님이 계신데, 성격은 엄청 좋아. 근데 누가 봐도 전 직장에서 일했을 때 사용했을 법한 계획서를 스크린에 띄워서 보여주시는 거야. 전 회사에서 추진하려 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말이야. 교수 본인은 내용에 대해 아니까 수업하기 편하겠지만, 학생들이 그걸 보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겠어? 그리고 수업 중에 교수님께 너무 잘 보이려는 학생들이 있었어. 그런 분위기 때문에 대답하거나 반응하기 좀 꺼려지기도 했고. 나는 이런 교수님은 안 좋다고 생각해.

박현규 기자: 'C' 강의 재밌어요. 근데 강의 방식이 학생들이 토론하고, 교수님께 확인받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토론을 하고, 우리 나름의 결론을 내리면 교수님께서는 이해도 같은 걸 따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자기 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었고, 얼마나 강의에 집중하는지 평가하시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수업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려 들어오는 학생들, 수강신청 실패해서 아무거나 남는 거 줍다보니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보통 그냥 조마다 한두 명씩 강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이 사람들끼리만 해요.

박현규 기자: 비전문가 교수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요. 제가 들은 교양 중에 미대 출신 교수님이신데 이공계 교양을 맡으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수업 내용과 방식, 평가 기준이 납득이 안가는 게 많았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전공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강의에 잘못 배정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민주 수습기자: 저는 1학년이라 수강신청을 딱 한 번 해봤지만, 제가 제일 듣고 싶은 것들은 다 수강신청에 실패했어요. 비싼 등록금 내고도 듣고 싶은걸 못 듣는다는 게 조금 씁쓸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듣고 싶은 것들 중 두 개 성공해서 듣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ㅇ' 교수님의 'J' 수업이에요.

신대현 기자: 그러면 나도 교양 하나 추천할게. 'L' 수업인데, 중간고사가 자신이 현재 어떤 직업을 꿈꾸며, 미래에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 소개하는 거야. 이를 통해 4학년은 취업에 앞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생기고, 아직 먼 미래인 1학년은 물론, 2, 3학년도 자신의 비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김민성 기자: 저도 교양 몇 개를 추천하자면 'M' 수업. 이 강의는 종합적 사고를 필요로 해서 저의 시야를 넓혀줬어요. 개인적으로 교양의 의미를 잘 살렸다고 생각한 강의에요. 또 하나는 'N' 수업이에요. 봉사활동으로 학점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인데, 그만큼 강제성을 띄고 있긴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 많이 느끼고, 생각의 폭이나 시야를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O' 수업. 교수님도 정말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주셨고, 그만큼 배울 것도 많았던 강의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양의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양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는 것들을 더 많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비전공 학생들을 상대로 쉽게 알려줘야 하고, 교수님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것을 가르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교수의 열정과 학생의 성실함이 더해지면 그게 바로 좋은 교양이 아닐까 싶어요.

기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꿀 교양'과 추천 교양, 비추천 교양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좋은 교양, 안 좋은 교양의 요건과 현재 교양 수업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까지 솔직하고 대담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꿀 교양'을 찾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노력으로 이뤄낸 자신만의 수업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교수와 학생이 함께 좋은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수업이고, 그때야 비로소 배움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김민주, 조유빈 수습기자



그래도 난 '사람 냄새'가 좋다

영화 〈기생충〉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한국 영화계의 거장 봉준호 감독이 온갖 '계획'으로 무장해 돌아왔다.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의 감독 봉준호와 배우 송강호는 흰동가리와 말미잘처럼 상리공생 관계였다. 그리고 역시 상리공생 관계답게 6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춰 완성한 영화 〈기생충〉으로 서로에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배우라는 타이틀을 선물했다. 하지만 영화의 내용은 〈기생충〉이란 제목과 다르지 않게 공생이 아닌, 마치 곱등이와 연가시의 관계 같은 '기생'을 다뤘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극명하게 양분돼 있고, 영화에서는 이 관계를 장소의 높낮이로 드러내고 있다. 하루에 몇 번 햇빛이 드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기택(송강호) 가족, 차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높은 유명 건축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집에 살고 있는 동익(이선균) 가족, 그리고 빛이 절대 들지 않는 지하 벙커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문광(이정은) 부부로 나뉘어 각자의 사회적·계급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영화는 빛을 쫓아 낮은 곳에 있는 기택 가족이 동익 가족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투쟁을 그려냈다. 하지만 이카루스의 날개 이야기처럼 주제를 망각한 채 빛을 쫓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추락하고 만다. 이카루스가 추락한 곳은 바다였지만, 영화 속 그들이 추락한 곳은 빛이 들지 않는 지하였다.

지상도 지하도 아닌 애매한 곳에 살고 있는 기택 가족은 계획을 세워 마치 바퀴벌레가 자리를 잡고 알을 까듯 동익 가족의 저택으로 각자 거짓으로 취직하게 되고, 주인 가족이 집을 비웠을 때 주인 행세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으면 어떨까 하고 가정하고, 상상한다.

하지만 기택 가족만 거짓된 연기를 하며 사는 것은 아니다. 동익 가족에게서도 가장(假裝)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익의 아들 다송(정현준)은 인디언 모자를 쓰고, 인디언 소리를 내며 화살을 쏜다. 다송이는 인디언을 연기한다. 과거 역사에서 인디언은 영국, 즉 침략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강탈당했다. 이처럼 동익 가족은 기택 가족이라는 침략자들에 의해 맞이할 비극적인 미래를 암시한다.

영화평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메타포(Metaphor)'들에서 '계급'의 메시지를 읽었다. 이 영화는 계급의 의미를 아주 선명하고, 잔인하게 보여주고 있다. 계급을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이미지는 바로 '수직적 구조'이다. 봉준호 감독도 공식 기자회견에서 "집 안의 수직적 구조로 계층이나 계급을 표현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직적 구조는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영화 속 구석구석에 녹아들어 있다. 물론 전 세계 영화 역사에서 수직적 공간은 계급이나 계층을 나타낼 때 많이 쓰였다. 그러나 반지하라는 공간은 서구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공간이다. 영화는 〈설국열차〉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설국열차〉에서는 열차의 꼬리칸과 머리칸으로 나눠 계급의 적대를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냈었다. 이번 〈기생충〉은 그 구조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세워진 것뿐이다.

기택 가족과 동익 가족에게서도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엿볼 수 있다. 기택은 동익의 운전수로 들어가 동익을 높게 평가하고, 부자들은 다 착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동익의 부인 연교(조여정)는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동익 가족을 속이는 기택 가족의 모습은 가족 사기극에 가까우면서 한편으로 즐겁게 느껴진다. 반면 동익 가족은 기택 가족이 아무리 사기를 치더라도 그 위치에 변함이 없다. 그들에게 있어 그저 기택 가족의 가족 사기극은 일상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영화 속 대립구도는 기택 가족과 동익 가족이 아니다. 기택 가족과 또 다른 '기생충 가족' 간의 투쟁을 그려내고 있다. 문광 부부의 등장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가족 사기극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가족 혈투극으로 변모한다.

기택 가족은 문광 부부를 동익 집에서 몰아내려 하고, 문광 부부 역시 기택 가족의 약점을 알아채고 즉시 그들의 약점을 잡는다. 반지하 보다 더 밑바닥인 지하실에서 서로를 집에서 밀어내고 살기 위해서 같은 계급끼리 싸운다. 그 모습을 본 뒤 입가에 감돈 웃음은 씁쓸한 맛으로 변한다. 그리고 영화의 결말은 씁쓸하다 못해 떫어 침을 뱉어도 할 말이 없게 만든다. 봉준호 감독의 전작 〈설국열차〉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에너지가 있었고, 투쟁은 결국 계급을 뒤흔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기생충〉은 꿈도 희망도 없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기택 가족 역시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에 높은 동익 가족의 집에서부터 긴 계단들을 내려온다. 반지하가 물에 잠기고 변기에서는 더러운 하수도의 구정물이 꾸역꾸역 솟구치듯 올라온다. 기택의 딸 기정(박소담)은 무심하게 변기를 깔고 앉아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는다. 결국 투쟁해도 계급의 역전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봉준호 감독은 '봉준호스럽게'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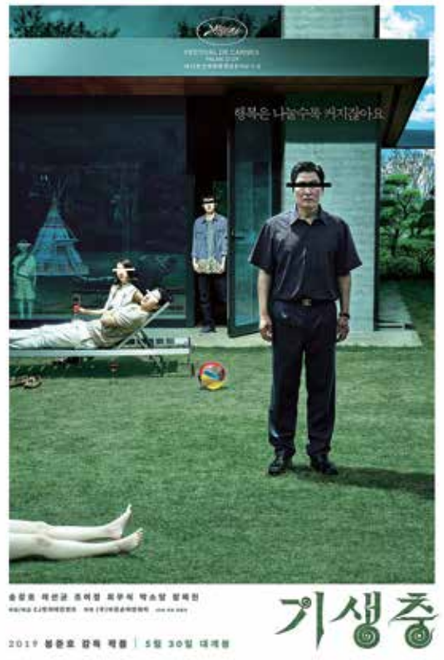
이 영화는 수석(水石)에서 시작해서 수석으로 끝난다. 기택의 아들 기우(최우식)는 수석을 애지중지하고, 물난리가 났을 때도 가장 먼저 챙겨서 나오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는 개울에 버린다. 수석은 물속에 있으면 그냥 돌에 불과하지만 장식해두면 수석이 된다. 하지만 그냥 돌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기택 가족은 수석과 같다.

계급의 갈등은 공간 뿐 안이라 감각으로도 표현됐다. 바로 '냄새'라는 감각이다. 동익 가족은 기택과 그의 가족에게서 같은 냄새를 맡는다. 지하실 곰팡이 냄새, 지하철 냄새처럼 퀴퀴한 냄새가 난다며 못마땅해 한다. 영화 클라이맥스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동익은 스멀거리며 올라온 냄새에 코를 막으며 혐오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은 방아쇠가 되어 돌아온다.

냄새는 계급, 인종, 지역, 장애의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가장 예민한 감각이자, 몸 안 깊숙이 스며들어 숨길 수도, 쉽게 지울 수도 없는 낙인이다. 기택은 이 냄새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기정은 "이 지하실에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마을이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와도 그들의 냄새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비에 젖은 옷을 다 말리지 못해 불쾌한 냄새가 났을 것이다. 쇼핑을 마치고 벤츠를 운전하는 기택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를 맡고 연교 또한 노골적으로 코를 잡고 인상을 구긴다. 차 안의 같은 공간에 있어도 둘의 계급은 완벽하게 구분된다.

지상과 지하 공간의 시간은 같지만 스며듦의 깊이가 다르다. 스며든 냄새는 지워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온몸을 옭아맨다. 영화 속 냄새는 상대를 구별 짓는 감각으로 묘사됐지만,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신대현 기자



역사적인 사건이 주는 큰 울림

연극 〈보도지침〉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펜을 놓는다."
-실상을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전남매일신문 기자 전체가 공동으로 낸 사직서의 내용

보도지침(홍보조정지침)은 제5공화국 시절 정권안보를 위해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매일 각 언론사에 은밀하게 시달(示達)했던 것으로, 뉴스의 비중이나 보도 가치에 관계없이 보도 방향과 보도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강압적인 지시를 내렸다. 당시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김주언 기자는 보도지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10개월 동안 시달된 584개 항의 보도지침 내용을 〈한국일보〉가 보관 중이던 자료철에서 복사해서 월간 잡지 〈월간 말〉에 넘겨주었다.

〈월간 말〉 지는 1986년 9월 6일에 특집호 〈보도지침: 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발간하였고, 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공동으로 명동성당에서 〈보도지침 자료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보도지침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보도지침을 폭로한 언론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9년 후인 1995년, 이들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은 보도지침에 의해 알려지지 않았다.

연극 〈보도지침〉은 언론계의 흑역사로 기억되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재구성된 작품 속에는 실존 인물들이 새롭게 탄생하여 무대 위에 올랐다. 보도지침 사건을 폭로한 김주언 기자는 '김주혁'으로, 〈월간 말〉 지를 세상에 공개한 김종배 편집장은 '김정배'로, 이들의 재판을 변호했던 한승현 변호사는 '황승욱'으로 재탄생되었다. 여기에 법 앞의 판결에 맞서게 된 검사 '최돈결'이 가세하여 작품 속 주인공들은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를 통해 청춘 시절을 함께 한 친구들로 설정되었다.

뜨거웠던 시절을 함께한 이들은 시간이 흘러 보도지침이라는 사건으로 법과 대립하게 된다. 그들이 선 무대는 '법정'이자, 과거 연극 동아리에서의 추억을 그리는 '동아리방'인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극장'이자, 논쟁이 펼쳐지는 '광장'이 된다.

교차하는 무대에서 배우들은 시대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첫째, "이전의 시대가 할 말을 하는 것이 절실한 세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수많은 말 중에서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가 중요한 세상이 왔다. 잘 말하는 것과 잘 들어주는 것,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시대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시대가 발전하면서 무수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 혹은 왜 지금까지 숨겨왔을까?"

셋째, "우리의 웃음은 왜 화로 변해 가는가? 말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삶과 정체성이 다르다고 우리는 서로에게 분노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혐오해야 할까? 오히려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말을 잘 펼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승욱' 변호사의 최후진술 중에 이런 대사가 있다. "생각해보면, 저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힘은 언제나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강력한, 아름다운 지침이 있었습니다. 책이 있었고, 신문이 있었고, 연극이 있었고, 선배와 스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저기, 제 친구 주혁이와 정배. 이토록 강력하고 아름다운 지침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 우리는 그 어떤 아름답지 못한 지침에도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시대 상황에 발걸음을 맞추는 사고방식과 시대 흐름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아름다운 지침'을 찾아야만 한다.

한규현 기자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억을 더듬어 증언을 보태주십시오.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

도서 〈소년이 온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항쟁을 다룬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짧게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허나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그 날’ 이전까지 평범한 시민들에 불과했다. 하지만 독재와 탄압 속에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도’로 전락하여 계엄군의 총부리 앞에 서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폭력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며 그에 맞서려 노력한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민주화를 외쳤던 수많은 광주 시민들은 결국 계엄군의 탄압 앞에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후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밝혀진 공식 사망자는 193명, 부상자는 3,139명이며 이후 고문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376명, 구속 및 고문 피해자는 1,5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광주 시민의 수가 40만 명 정도였는데, 계엄군에게 지급된 탄약이 80만발이었다는 점만 봐도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는 민간인 임산부를 죽이고, 가족들 앞에서 그 배를 찢어 태아까지 난도 질했다는 믿기 힘든 증언이 있을 정도로 비인도적인 행위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위해 많은 피를 흘렸다. 하지만 오늘날 그 피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무게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한강 작가의 〈소설이 온다〉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구도의 묘사를 통해 자유라는 ‘피’의 무게를 상기시켜주는 소설이다.

“역사는 반복 된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유혈이 낭자했던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흘렸던 피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분단과 광복 이후 선조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이미 상처로써 다가온 ‘소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그날의 진실과 무게를 온 국민이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샌가 ‘소년’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김민성 기자

한국 근대미술사에서 잊힌 그들에 대하여

《근대미술가의 재발견 1 : 절필시대》

[절필(絶筆)] : 1. 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나 글씨. 2. 붓을 놓고 다시는 글을 쓰지 아니함.



한 유명 개그맨의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2등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가장 우수하고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만 기억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등이 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은 걸까? 그들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까?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가장 우수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야할 이유는 없다. 현재 다양하게 열린 전시회 중에서도《근대미술가의 재발견 1 : 절필시대》를 선택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오는 9월 1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개최되는《근대미술가의 재발견 1 : 절필시대》전은 잊혀가는 화가들의 흔적과 기억을 모으고 근대미술사의 지평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 시리즈 중 첫 번째 기획 전시전이다. 이번 전시회는 혼란한 시대 상황과 취약한 예술 환경으로 인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펼치지 못한 화가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 기획전의 주인공들은 정찬영, 백윤문, 정종여, 임군홍, 이규상, 정규 작가 총 6명으로, 근대미술사에서 개성적인 예술세계들을 펼쳐나갔음에도 이들을 둘러싼 시대 상황과 예술 환경으로 인하여 큰 주목 없이 우리에게 잊혀갔던 인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는 이로 인해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화가들의 화업과 그 성과를 재조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었다.

일요일 오후에 방문한 국립현대미술관은 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점심시간이 겹친 애매한 시간대였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이번 전시회를 보기 위해 미술관 전체를 가득 채웠다. 단순히 벽면에 적힌 화가 설명과 작품들만 보았다면 몰랐겠지만, 미술관 큐레이터의 자세한 전시 설명을 통해 각 작품에 대한 서사를 알고 나니 그림 하나하나가 무척 흥미롭게 다가왔다. 작가의 일생과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 그리고 그 결과물이 가지는 의의. 마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6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았다.

6명의 작가들 모두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큰 감동을 준 작가는 '이규상 작가'였다. 이규상은 정규와 같은 한국 모던아트 1세대로,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고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현대미술을 개척한 선두주자이다. 하지만 일체의 형상이 배제된 극도의 추상회화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이해로부터 멀어졌고, 오랫동안 변방에 머물러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원래 이규상은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일제강점기에 시대적 소용돌이에 휩쓸려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평생을 재판에 시달리며 살았다. 이로 인해 이규상은 매우 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재료를 구할 돈이 없어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규상은 평생 소수의 작품만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도 어렵게 단 7개의 작품만을 구할 수 있었다.

여러 점의 작품으로 빼곡히 차인 다른 작가들의 전시관에 비해 이규상의 전시관은 정규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았다. 몇 점 되지 않는 이규상의 작품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작품A'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작품A는 작품 뒷면에 이규상이 조선 미술전람회에 출품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적혀있었으나 실제로 조선미술전람회에는 출품한 기록이 없는 작품이었다. 이규상이 정말 작품을 내지 못한 것인지, 다른 이름으로 작품을 제출한 것인지는 불분명했다. 작품A는 큰 별과 원으로 구성된 그림이었다. 거친 붓 표현과 두꺼운 질감이 눈에 띄었다. 자세한 설명이 없는 작품이었지만, 힘든 삶을 살았던 이규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지막 정규 작가의 이야기까지, 모든 설명을 듣고 작품을 감상한 나는 이들이 왜 이번 기획전의 첫 주인공으로 선택되었는지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모두 근대미술사에서 분명히 회자되어야만 한 한국 미술사의 중요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여성 화가에 대한 편견, 채색화에 대한 오해,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립, 다양한 예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이들을 둘러싼 여러 상황으로 인해 절필해야만 했고, 그들을 비추던 조명은 그들이 아닌 타인을 비추게 되었다.

그들이 그 시대 최고의 예술가가 아니라고 해서 잊혀야할 이유는 없다. 그들은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에게 이 6명의 예술가를 알 기회를 준 이번 기획전에 박수를 보내며, 많은 사람이 1등이 아닌 2등에게도 주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윤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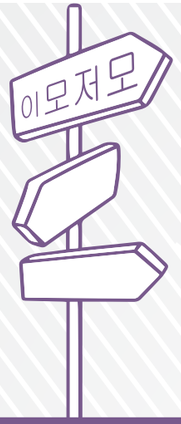


기술중심 교육 Super-Tec

교양인 양성 Super-Edu

인성중심 교육 Super-Persona

봉사정신 교육 Super-Serve





신한대, 세계전기차협의회, 고양도시관리공사 MOU 체결

신한대학교는 4월 26일 세계전기차협의회,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신한대학교와 '세계전기차협의회(Global EV Association Network)'는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한대학교는 세계전기차협의회,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산학연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성공적 개최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김민주 수습기자

뷰티헬스전공, 신한메디컬센터와 연계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 뷰티헬스사이언스 학과에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각종 의학적 미용 시술(보톡스, 필러, PDO 실리프팅, PRP 주사 등)과 연계한 전문화된 뷰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된 맞춤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인 '메디컬 에스테틱' 현장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2017년 2학기부터 뷰티헬스를 전공하는 4학년 학생들은 기존의 교과 과정에 더하여 메디컬 에스테틱(Medical Esthetic) 강좌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현장 실습과 연동하여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

김민주 수습기자



개도국 자동차산업경쟁력강화에 앞장서는 신한대학교

신한대학교가 4월 29일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표한 2019년도 KOICA 글로벌 연수기관 공모에서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연수사업은 콜롬비아 자동차산업 공공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콜롬비아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본 연수를 통하여 한국과 콜롬비아간 자동차부품 교류와 협력 증대는 물론, 우리 자동차산업의 남미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민주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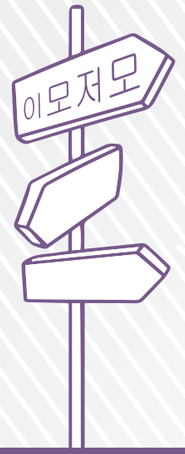
신한대, '2019년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신한대학교가 환경부의 '2019년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신한대학교는 2월에 '2019년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사업' 공모기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3월 환경부 평가위원회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를 인정받아 서울대, 인천대, 장로회신학대, 충북보건과학대와 함께 최종 선발되었다.

신한대학교는 2010년 저탄소 친환경경영 그린스타트 선포식을 기점으로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시스템 도입과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으로 에너지 효율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그린폴리스 환경동아리 운영을 통한 친환경 생활 실천과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등 그린캠퍼스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민주 수습기자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신한대학교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간호대학 2학년(132명)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간호대학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3학년부터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면서, 환자들을 직접 대해야 하는 임상실습의 특성상 모든 학생들에게 A,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결핵 등 약 13종의 감염병 유무에 대한 검진과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개인부담금이었던 약 2,300만원(1인당 175,000원 상당)정도의 검사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민주 수습기자



경기섬유산업연합회 - 신한대학교, 채용연계 약정체결식 진행

신한대학교는 지난 7월5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섬유산업연합회(회장 정명효)와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를 위한 약정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이는 '2019년 수요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일환으로, 지난번 실시한 미니채용박람회에서 최종적으로 3개 업체(평화섬유, 피엔에이코리아,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 4명의 학생이 채용 약정 매칭되는 성과를 이뤘다.

조유빈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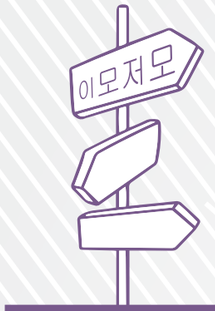
2019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신한대학교는 2019학년도 2학기 외국인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베트남,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약 10개국 나라의 학생 260명이 참여하였으며,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양주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등의 기관에서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유익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신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어학연수생 215명, 학부유학생 448명, 대학원생 133명, 교환학생 28명으로 총 824명이 재학중이다.

조유빈 수습기자







신한대-이스타항공 현장실습교육, 취업연계 '업무협약' 체결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는 22일 의정부캠퍼스 믿음관 2층 회의실에서 ㈜이스타 항공(대표이사 최종구)과 현장실무 교육 및 산학협동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항공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지원에 함께 나선다.

이와 함께 산학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 및 개발 정책 자문 등을 통하여 상호 발전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조유빈 수습기자

신한대학교, 월드프렌즈 청년중기봉사단(베트남 1기) 파견

신한대학교는 오는 8월 28일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공동 시행하는 '월드프렌즈 청년중기봉사단(베트남 1기)'를 파견한다.이번 청년중기봉사단은 신한대학교의 첫 번째 파견기수로, 5개월 간 베트남 하노이와 인근지역 2개 직업훈련대학에 파견되어 공과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파견되는 2개 대학은 코이카 원조조달사업의 수혜기관으로, 프로젝트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우리 청년인재 15명이 현장에 파견되어 교육시설 개선 및 신기술 지원, 한국문화 전수에 앞장설 예정이다.

조유빈 수습기자







신한대학교, 한전KDN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대학교는 지난 8월 1일 한전KDN(사장 박성철) 본사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ICT전문 공기업인 한전KDN과 친환경 캠퍼스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센터 구축협의 및 산학연 기술 협력을 하고자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기북부 산학연 기반의 신재생에너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대학의 에너지 자립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하며, 산.학 교류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유빈 수습기자

대학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2~5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순남	교양교육원
박진우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강수철	교육총괄팀
이광규	컴퓨터공학전공
최화식	임상병리학과
홍승예	바이오생태보건대학
김용섭	교양교육원
서종원	임상병리학과
주영훈	공연예술전공
이민선	간호학과
김지명	식품영양전공
김상현	방사선학과
민원표	교양교육원
한경희	임상병리학과
권운영	국제어학과
이효상	공공행정학과
김용훈	연천분원
강성종	총장
권영진	대학본부
신현주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유창리	국제어학과
김대근	미디어언론학과
김보혁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강선옥	예술심리치료학과
최봉국	시설지원팀
김슬기	비서팀
정인교	비서팀
조윤재	교양교육원
이정은	간호학과
강민준	지역사회서비스센터
김미진	간호학과
김주신	식품영양전공
김홍빈	대학본부
이규태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정훈	방사선학과
홍동희	방사선학과
정선도	임상병리학과
유수평	국제어학과
안이수	공공행정학과
방승환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김영성	식품영양전공
조명래	구매계약팀
이주헌	바이오식품산업전공
형성우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김창희	학생상담센터
이웅배	뷰티헬스전공
이금숙	사회복지학과
이대성	국제교류팀
김현우	교양교육원
김향선	사회복지학과
조성심	사회복지학과
최에스더	뷰티헬스전공
이웅배	뷰티헬스전공
김봉건	입학사정팀
최승구	임상병리학과
김동섭	외식조리전공
안선정	외식조리전공
차정원	안경광학전공
김선명	에너지환경공학과
전법주	에너지환경공학과
송진희	컴퓨터공학전공
황만수	컴퓨터공학전공
이대성	국제교류팀
오이균	공공행정학과
권영길	교양교육원
송운흥	경기북부개발연구원
김봉건	입학사정팀
김남용	공공행정학과
장인봉	공공행정학과
서장훈	임상병리학과
이찬주	전자공학전공
김보혁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이상록	전자공학전공
권영일	임상병리학과
배시애	교양교육원
신경환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김남용	공공행정학과
조우택	입학총괄팀
전현주	국제어학과
강성현	산업디자인전공
박현철	산업디자인전공
김기순	산업디자인전공
이명호	외식조리전공
김인섭	교무연구팀
김현우	교양교육원
황재석	에너지환경공학과
홍승희	식품영양전공
최병범	식품영양전공
오병칠	공간디자인전공
진선범	교육총괄팀
이승영	학술정보팀
조우택	입학총괄팀
홍수희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정세훈	안경광학전공
최지연	교수학습센터
곽영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김순옥	간호학과
황라일	간호학과
박영심	식품영양전공
송경애	사회복지학과
조숙희	국제어학과
황희숙	사회복지학과
이현종	글로벌관광경영학과
박소정	뷰티헬스전공
임승희	사회복지학과
조규봉	임상병리학과
김호성	방사선학과
한수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류현욱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김현숙	교무연구팀
김용섭	교양교육원
이재은	교양교육원
김주연	글로벌관광경영학과
박정우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윤효숙	임상병리학과
강정원	유아교육과
고영아	국제어학과
서수연	뷰티헬스전공
이정규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조규봉	임상병리학과
변현진	산업디자인전공
김수경	치위생학과
정성균	치위생학과
윤미숙	치위생학과
강정오	치위생학과
최병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홍경옥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김후환	과학기술융합대학교학팀
이선민	공간디자인전공
배영금	국제어학과
신현곤	에너지환경공학과
윤상곤	컴퓨터공학전공
김준기	행정지원처
박현수	공간디자인전공
조성윤	시설지원팀
이종탁	산업디자인전공
오세인	관리운영처
장용운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최경서	안경광학전공
조성재	전자공학전공
이현숙	공연예술전공
이상구	글로벌통상경영학과
노명희	임상병리학과
박주원	유아교육과
서한교	뷰티헬스전공
김옥자	뷰티헬스전공
신현곤	에너지환경공학과
황경숙	치기공학과
전영주	홍보팀
한승희	입학총괄팀
김광수	이충환
김용대	이승주
박성모	이석재
이래곤	주식회사 임포유
김진경	한국토지주택공사_서울지역동
김정욱	성크리너
김준석	수요예배
김정욱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김준석	(주)비전엔지니어링
송용호	서울대병원신한동문회
장윤태	한국마이크로칩테크놀러지(주)
정한별	한국국제협력단
남궁혁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회사
정유찬	(주)제이에스픽쳐스
박광용	주식회사 레이시스
이영기	한가람&B
이춘식	이마스타덴탈허브기공소
강기봉	EDUCATION LOAN
김진경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경기도
최진영	임상병리사회
정유찬	(주)우원엠앤이
홍은숙	(재)롯데장학재단
이서연	휴먼비전(연세휴치과)
송동민	임상병리학과교수실
신화수	치기공과교수실
임애련	(주)다산북스
이진욱	뷰티바이오센터(BEAUTY BIO
이예은	CENTER)
차종호	기아자동차(주)
김윤철	신한ROTC동문회
홍고운	농협은행의정부시지부
이미숙	연세휴치과 종암점
이용걸	오렌즈방학역점
정춘례	(주)의정부기아자동차서비스
이준우	DK메디칼솔루션(주)
송홍철	도서출판 창지사
홍명기	(사)한국설비기술협회
전경환	(주)오토기기
김태석	송내교회
정은실	
김영길	
조한아	
이희정	
정우용	
김선희	
이종원	
최정일	
송배은	
유이근	
이성주	

걷는선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인적사항	필수	□동문 □재학생 □학부모 □법인(기업) □일반인(비동문) □교직원 ※ 중복체크 가능			
		성 명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필수항목은 법인세법 제24조 / • 소득세법 제16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며, 기부영수증 미 발급 기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후면 참조)			
	선택	연 락 처			
		학적사항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 장 명		부 서 명	
				직 위	
		E-mail			
		우 편 물 수 령 지	□ 자택 □ 직장	기 부 추 천 인	*여러명일 경우 학과명 또는 부서명 기재요망
약정		총 액	금( )원 (₩)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총( )회 / 월( )원씩		
		기부금 용 도	□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 지정발전기금	(지정) * 학과, 연구소 등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 무통장 입 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입금자명	□ 기부자명과 동일 □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 자동이체 (CMS) / 휴대폰결제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모바일 홈페이지 (http://m.shinhan.ac.kr/) 하단 '발전기금' 메뉴 클릭		
		□ 교직원 급여이체	별도의 급여이체 동의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필히 √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2~5 (Fax 3169)
■ 우편 : (11644)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19. 12/ 198호

편집후기

김민성 기자

어느덧 많은 변화들에 적응되어 여러모로 작성이 편했던 198호다. 동시에 종강 시즌과 작성 기간이 겹쳐 다들 힘들었을 텐데 어찌어찌 마감이 마쳐진 걸 보니 신문사에 잘 적응한 건 나뿐이 아닌듯하다. 이제 즐거운 방학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

김민주 수습기자

대학에 입학하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 벌써 종강을 했고, 이제 내가 신문사에 입부한 후 두 번째 톡톡이 나오려고 한다. 이번 톡톡은 처음부터 함께 했기에 느낌이 남다르다. 빈 레이아웃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번 톡톡을 무사히 마감하며 나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한 학기동안 신문사라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다.

박현규 기자

인간의 육신은 나약하여, 커피 없이는 새벽 2시만 되어도 피곤해진다. 밤샘 과제를 하며 그것을 깨달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 달 식비보다 커피값이 더 많이 나왔다. 대형마트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사서 마시는 편인데도 그렇다. 돌이켜보니, 커피가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끊으려고 그렇게나 노력했건만 커피 없이는 기사가 써지질 않는다. 결국 이번 신한 톡톡도 카페인의 힘을 빌어 완성할 수 있었다. 나는 영원히 커피의 사슬에 얽매여 살아갈 것이다.

신대현 기자

'기사'에 '기' 자도 모르던 때가 있었다. 글이라고 해봤자 망상에 가까운 소설을 써본 게 다였고, 책이나 신문을 잘 읽지도 않았다. '전공이 뭐냐'는 친구들의 질문에 "언론학과"라고 답했을 때 친구들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항상 "왜"라는 물음이 뒤따랐고, 스스로도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졌다. 성장했음을 느끼고, 자기만족에 불과하더라도 나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더 나아갈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그래도 더디지만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자신에게 떳떳한 자신이 되기 위해, 타는 목마름으로.

정윤지 기자

2019년의 반이 지났다. 짧다면 짧고 길면 긴 6개월이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결과가 알려주듯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다. 올해가 끝나기까지 남은 시간들이 있다.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올해를 마무리하고 싶다.

조유빈 수습기자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실제 나의 모습은 그 마음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속상하면서도 더 열심히 배우고 싶다. 지금 맡은 기사도 어렵게 작성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기사를 담당하고 진행해나가야 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신문사에 있는 동안 계속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다.

조희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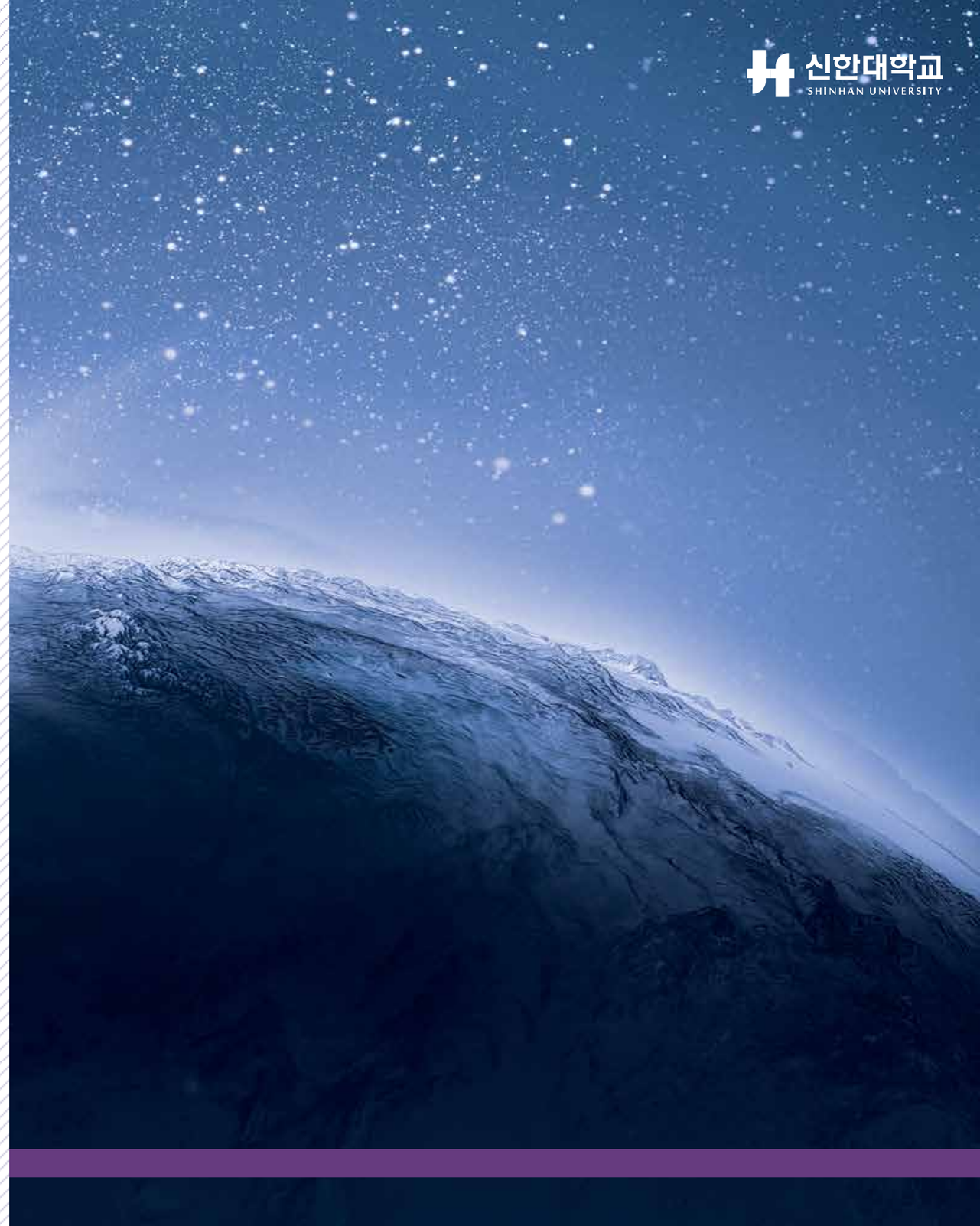
1년 동안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며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정보를 모아 글을 쓰기도, 인터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이제는 직접 경험하고, 질문하고, 글을 쓰는 일에는 적응했으나 기삿거리를 가져오는 일이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모든 일에 능통한 기자가 되어야겠다.

최수민 편집장

매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년 그 계절의 나는 어땠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글은 접할수록 심오하고, 다채로워져 더욱 갈피를 잡기 힘든 것 같다. 작년까지도 이해 못 했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가기 시작한다. 글로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를 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이었다. 예전에는 한결같고 싶었다면, 요즘은 한결같은 게 좋은가에 대한 물음도 생긴다. 어느 쪽으로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한규현 기자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갔다. 신문사의 한 학기도 지나갔다. 시간이 너무, 너무, 너무 빠르다. 시간은 빠른데 마감은 다가온다. 미리미리 하자. 다음 학기 예정인 199, 200호는 미리미리 마감하는 것이 목표이다. 방학 동안 다음 호를 미리미리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쉬어야겠다.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